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에 종말을 알리는 영적 자
연적, 역사적 징조들이 몰입듯 닥쳐 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이 창조와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
님 아버지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
옵소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
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
아 업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라
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호세아 14:1-2a)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81호 2012년 4월 28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4월 17일 부터 20일까지 금란교회에서 열린 제 27회 세계한인 목회자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한편 설교에 앞서 드린 헌금시간
에는 김준성 목사부부가 헌금송을
불렀으며 설교 후에는 금란교회 성
도들과 참석자들이 함께 통성기도
에 들어감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마지막 저녁 영성집회는 박규성
목사(윈즈장로교회) 사회로 오프닝
송 플롯독주, 기도 김혜천 목사(뉴
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찬양 글로
리아선교중앙단, 말씀 소강석 목사,
화답송 김선용 사모, 축도 이응주 목
사(일본 식마켄도가네 흠쳐치의 순
서로 진행됐다.

소강석 목사는 "세미한 음성, 새
로운 사명" (왕 상 19:9-17) 이
라는 제 목의 설
교에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아
가 이세벨의 한마디에 기가 죽어 있
을 때 하나님은 바람이나 불, 지진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셨다. 처음에
하나님은 부르시지만 그 다음에는
찾아오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
에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이며 하나
님과의 친밀감이다. 평신도들도 정
체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낮과의 둘째 날은 호텔 뷔페로 아
침식사를 한 후 금란교회로 이동한
참석자들은 첫 영성집회에 들어갔
다.
강사 이영섭 목사(블티모어장로
교회)는 "2천년대는 속도의 시대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변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의 최종목표 천국은 변하지 않
는다"고 말하고 "본문의 인내, 하나
님의 인내를 생각해야 한다. 신앙생
활은 인내이며 목회도 인내이다. 끝
까지 잘 참는 성도, 목사가 성공한
다"고 말하며 목회 중 힘들었던 시
간들을 간증하기도 했다.

김 목사는 "부르짖는 기도를 몰라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
론 목상기도도 들으시지만 부르짖
어 기도하면 성령 받고 근심, 불변
증 등 병마가 다 물러간다. 스피릿
은 열정 없는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했다. 기도에서
불은 원동력이다. 복잡한 문화 속에
사는 우리는 그것들을 누를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 영적으로 살아있
는 교회는 기도와 찬송소리가 다르
다"고 말하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
도해야 한다"며 "성령 받아야 전도
하고 선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어 시3:4, 18:6, 시77:1, 시142:1에
서 모두 부르짖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면으로 계속)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말씀 갖고 하나님께로!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및 평신도 세미나 성료, 11개국서 400여 명 참석

제 27회 세계한인목회자 및 평신도 세미나가 지난 17
일 오후 6시 서울 금란교회 지하 리셉션장에서 개막돼
20일까지 계속됐다.

미국내 15개 지역과 브라질, 캄보디아, 캐나다, 중
국, 프랑스, 그리스, 일본, 필리핀, 러시아 그리고 한국
현지에서 4백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를 시작하면
서 발행인 장영춘 목사는 "부활절 후 바쁜 일정에도 참
여해주신 모든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특별히 금란교회
준비위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 "세미나가 태동
되기까지 많은 기도와 준비가 있었으며 '말씀을 가지
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세미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답

례사를 했다.

또 동 세미나 대표대표회장 김홍도 목사는 "미국 캐나
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일본 등 여러 곳에서 오신 분들
을 보니 기쁘고 또 환영한다"며 "우리 교회가 몇 달 동
안 두 가지 기도제목을 갖고 기도했는데 하나는 국회
에 보수위원이 과반수가 넘는 것인데 이미 응답받았
으며 또 한 가지는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인데 성의를 다
해 준비했으나 '아름다운 눈'으로 '바달라'고 환영사를
했다. 또 "많은 세미나 중에 이 세미나는 가장 진지하
다"며 "서로 격려하고 은혜가 넘치는 세미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용길 목사 사회로 시작된 첫날
저녁 리셉션은 글로리아선교중앙단
의 오프닝 송에 이어 김홍도 목사가
개회를 선언 한 후 대표대표회장 인사
및 환영사를 했다. 이어 김기원 목사
의 기도 후 발행인 장영춘 목사가 답
례사를 했으며 이어 강사소개, 지역
소개가 이어졌다. 축도는 김영대 남
가주목사회 회장이 맡았다.



권태진 목사

저녁 식사 후 시작된 영성예배는
천성덕 목사 사회로 시작했다. 예배
에 앞서 송규식 목사 인도로 찬양의
시간을 가진 후 글로리아선교중앙단
의 오프닝 송에 이어 개회선언, 기도
노기송 목사(뉴욕새에루살렘교회),
말씀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

축도 이
정현 목
사 (나
성서부
교회)
의 순
서로 진
행됐다.
권태진
목사 (군포제일교회)는 "땅자는 보는 아버
지의 시각"(눅15:22-32)이라는 제
목의 설교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며
"아버지는 신분을 보는데 형은 행위
를 본다. 숨겨진 아버지의 사랑이 보

인다"고 말했다.

또 복지사역에 대한 간증도 곁들
였다. "교회를 가정처럼 만들면 프로
그램이 필요 없다 탕자인 아들이지
만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넘치는 사
람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
들을 보고 세상을 보고 시련을 극복



김홍도 목사

연합예배는 송용길 목사의 사회로
시작돼, 기도 김성국 목사(혜전대학
교 교목실장), 찬양 글로리아선교중
중앙단, 장영춘 발행인의 신문사 소개
및 세미나 소개, 김홍도 감독에게 감
사패 전달, 남가주장로성가단의 찬
양 후에 본지 후원 헌금을 했으며 김
준성 목사(동양교회)부부가 헌금송
을 불렀다. 이어 군포제일교회 찬양
대 찬양과 참석자 모두의 통성기도

후 김홍도 목사가 "부르짖는 기도와
성령찬양"(막10:46-52)이라는 제
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부르짖는 기도를 몰라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
론 목상기도도 들으시지만 부르짖
어 기도하면 성령 받고 근심, 불변
증 등 병마가 다 물러간다. 스피릿
은 열정 없는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했다. 기도에서
불은 원동력이다. 복잡한 문화 속에
사는 우리는 그것들을 누를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 영적으로 살아있
는 교회는 기도와 찬송소리가 다르
다"고 말하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
도해야 한다"며 "성령 받아야 전도
하고 선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어 시3:4, 18:6, 시77:1, 시142:1에
서 모두 부르짖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면 제 27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3면 기슴-머리-손-습관 균형 맞춰라!



7면 복음이 동성애자를 구원한다 (상)
정호영(은혜한인교회 문서선교 전도사)



15,16면 사진으로 본 제 27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HIU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

1928년에 개교하고 UCLA 와 USC 등과 함께 WASC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의 인가를 가진 호프 인터네셔널 유니버시티에서 한국어 교회 음악 석사 학위 과정 과 실기 위주의 연주 전문가 certificate 과정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음대학과장인 조성환 교수입니다. 저희 대학원에 오시면

- 교회 음악 변화와 흐름들을 이해시켜 전통과 현대 음악스타일을 아우르는 교회음악의 전문 사역자
- 성경적인 예배를 이해하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의 예배를 기획하는 예배 전문 사역자
- 교회를 이해함으로 담임 목사와 함께 섬기는 종된 지도자
-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을 가짐으로 예술적 영성의 지도로 양성해드립니다.

학위 과정의 특징

- 한국어 통역으로 공부하기에 강의는 100% 이해하고 입학에 토플 점수가 필요없습니다.
- 정식 미국 대학으로 I-20 발행이 가능하고 ESL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최고의 강사진 (학과장 : 조성환 교수 Dr. Joseph Cho)
Donald Neuen 교수: 지휘법 (합창 및 기악), 합창 문헌, 개인 실기 지도
Christopher Gillette 교수: 교회음악사 및 예배 신학, 찬양 밴드 인도법,
Rick Terry 교수: 피아노, 교회 음악 행정

연락처: 김혜정 코디네이터 hckim@hiu.edu

대학 주소 : 2500 E. Nutwood Ave Fullerton CA 92831 총장 Dr. John Derry, 부총장 Dr. Paul Alexander

(1면에서 계속)



이영섭 목사

둘째 시간은 장영춘 목사(본지 발행인)가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호14:1-9)는 세미나 주제를 가지고 강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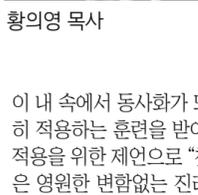
장 목사는 “한국에 세워진 초기 학교는 선교사들이 세운 미션스쿨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한국은 2백년이 채 못돼 세계강국이 됐다”며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영춘 목사

또한 장 목사는 “말씀을 떠나서는 목회자가 되지 않는다. 목사는 말씀에 통달해야 한다”며 “자유주의 본산지 뉴욕에 와서 ‘말씀중만, 기도중만, 성경중만, 사랑중만’ 감사를 받는다”고 말했다. 또 “경제도 경제학자들이 의한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회복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황의영 목사(SBM 대표)는 “말씀을 동사화 하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SBM의 핵심골자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적용하지 못하는 데 그 이유는 말씀의 핵심과 본질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말씀



황의영 목사

이 내 속에서 동사화가 되게 해야 하며 철저히 적용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적용을 위한 제언으로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변함없는 진리이다. 둘째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셋째 지식으로만 알지 말라. 넷째 복음의 본질과 생활원리를 제시하신다. 다섯째 말씀을 동사화해서 온전히 말씀에 사로잡혀야 한다. 여섯째 말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일곱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함께 하시는 모범을 보이자”고 말했다.

천성덕 목사(캐나다 대화장)는 강의에 앞서 천경주 사모와 듀엣으로 찬양을 한 후 “신실하신 하나님”(마28:18-20) 제목의 강의에 들어갔다.

천 목사는 “오늘 강의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내용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는가” 반문하고 “가는 목회자마다 말씀만 강론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힘을 썼다”며, “모든 목회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궁휼히 여기사’의 마음은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강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회사역이라는 확신이



천성덕 목사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점심식사 후 첫 강의는 송규식 목사(차세대 연구소장)가 “다음 세대 교회정착과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했다. 송 목사는 “이 시대는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고 대다수 미국교회에는 교육부가 없다. 언어보다 문화적 문제가 더 크다. 인터넷도 정복하면 잘 활용할 수 있다. 효율적인 교육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송 목사는 “주일학교를 살려야하며 그 교육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이들이 직접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개발돼야 한다. 주일학교가 일주일에 한 시간 뿐이지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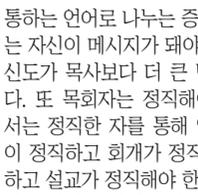
송규식 목사

이어진 강의는 김기원 목사(장위제일교회)가 맡아 “주어! 정직한 목회자가 되기 원합니다”(빌4:8)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김 목사는 “목사는 설교하는 기계가 아니며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가장 잘 소통하는 언어로 나누는 증인”이라며 “설교자는 자신이 메시지가 되어 하는데 때로는 평신도가 목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또 목회자는 정직해야 한다. 하나님께 서는 정직한 자를 통해 역사하신다”며 “말이 정직하고 회개가 정직하고 물질에 정직하고 설교가 정직해야 한다”며 자신이 정직한 목회자로 남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제목이라고 말했다.



김기원 목사

조일구 목사(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는 “말씀으로 부흥하라”(느8:1-12)는 제목의 강의에서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무너진 성벽의 진정한 회복은 건물의 회복이 아니라 신앙의 회복이라고 말하고 “진정한 부흥은 첫째, 말씀의 사모함에서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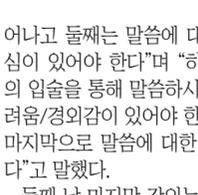
조일구 목사

어나고 둘째는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경외심이 있어야 한다”며 “하나님은 항상 사람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한 두려움/경외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일구 목사

둘째 날 마지막 강의는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가 “말씀으로 깨닫게 하라”(엡5:25-27)라는 제목으로 했다.



김승욱 목사

김 목사는 “911이후 미국교회와 서양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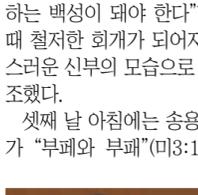


김승욱 목사

가 더 이상 세계 선교를 이끌 수 없게 됐다. 미국의 영성은 하락하고 추대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지상 인구의 3/1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영(Young) 크리스천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성숙한 신학의 토대는 한국뿐이다. 이 마지막 대에 한국 디아스포라교회와 북한 교회를 통해 준비해놓으신 것을 느낀다”며 “첫째, 말씀을 받는 자리에서 변화의 자리로 둘째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교제의 자리로, 셋째 말씀을 관람하는 자리에서 비전의 자리로 성도들을 인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결론적으로 김 목사는 “산당까지도 제거하는 백성이 돼야 한다”며 “각성을 일으킬 때 철저한 회개가 되어지는 말씀으로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날 아침에는 송용걸 목사(신전교회)가 “부패와 부패”(마3:1-8)라는 제목으로 아침경건회를 인도했다. 천성덕 목사의 사회로 오세훈 목사(새소망교회 담임)의 기도후 시작된 경건회에서 송 목사는 “하나님께 절대적 신뢰를 갖고 있던 미가 선지자가 주는 메시지는 한 마디로 부패한 지도자의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것”이라며, “인간은 물질에 향해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계획을 세우신다. 오늘날 가장 무서운 것은 영적인 지도자의 부패이다. 목사는 물질과 담을 쌓아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관심을 가지며, 영혼구원에는 관심 없고 헌금과 교회건물, 교인 수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회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힘들게 이민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사례를 간증하며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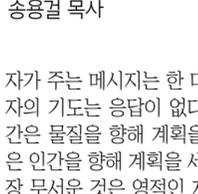
송용걸 목사

축도는 황의영 목사가 했다. 첫 강자의 권태진 목사는 “여호와 무장하라”(삼상17:41-49)는 제목의 강의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인격이 변한다”고 전제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인내로 무장하고 순종으로 무장하고 섬김으로 무장하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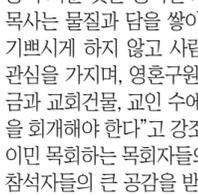
황의영 목사

권 목사는 “목회 위기가 올 때 절대 교인들과 대적하지 말고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줘야 한다”고 말하고 “힘든 교인, 실패한 교인, 가난한 자들에게 더 가까이 가는 ‘아비목회’에 대해 소개했다.



황의영 목사

이어서 “목회자의 물질관리”(마6:19-34)라는 제목으로 김홍도 목사의 강의가 이어졌다. 김 목사는 “돈이 목회자의 힘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받는 목회를 할 수 없다”며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탐심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할 것을 안하고 안할 것 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홍도 목사

또 “목사 자신이 목욕을 극복하지 못하고, 목사 자신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교인들에게 헌금하라 기도하라 헌신하라 하면 할 수 있겠느냐”며 “가장 안전한 저축법은 하늘에 쌓

는 것이다. 하늘나라 은행의 이자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 또한 “헌금은 교회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으로 목사 자신이 본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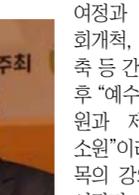
이어서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생명의 조직, 창조적 문화”라는 제목으로 수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의했다.

강의 중간 중간에 영상을 띄우면서 강의를 진행한 소 목사는 “목회자와 성도가 같은 꿈을 꾸어야 한다”며 “1)교회 내부의 안정과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2)교회분위기를 살려야 한다. 좋은 분위기는 리더의 비전과 핵심가치에 중직들이 동의해야 한다. 3)교회 모든 조직이 생명의 조직, 창조적인 조직으로 발전시키며 4)환경과 시대변화에 대응하며 외부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일래 목사(수정교회)는 대대로 불교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만난 신앙



조일래 목사



조일래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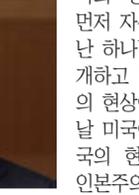
조일래 목사

여정과 수정교회개혁, 성전건축 등 간증을 한 후 “예수님의 소원과 제자들의 소원”이라는 제목의 강의에 들어갔다. 조 목사는 “복음의 두 기둥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부활을 믿어야 전도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며 제자들의 소원은 처음에는 정치적 출세였다가 두 번째는 성령충만 받는 것, 세 번째는 땅끝까지 복음전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될 때 우리의 하는 일이 모두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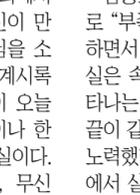
이정현 목사(나성서부교회)는 “미국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계9:1-5)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먼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게시록의 현상이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의 현실이다. 인본주의, 무신론의 악 사상이 만연되고 있다. 목회에서 조심



이정현 목사



이정현 목사



이정현 목사

해야 할 것은 1)생명을 다해 목회와 설교에 전념해야 한다 2)적을 만들면 안된다 3)실수하면 안된다. 미국 경제 불황은 정치보다는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미국이 신앙을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동 목사(오한동경교회)는 “선교지 일본에서의 ‘선교적 교회’”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일본 선교사로 부름받은 과정을 간증하고 일본 기독교의 시대별 상황과 일본 선교의 난관에 대해 설명했다. 또 오한동경교회의 부흥과 선교에 대한 간



김규동 목사



김규동 목사

증도 했다.

김 목사는 “요한교회의 일본 선교 전략과 방법으로 1)복음의 능력 확산 2)제자훈련 3)젊은이 중심의 사역 4)일본교회에 대한 협력과



김규동 목사

지원 5)계승과 재생산을 위한 시스템화 6)차세대 인재개발”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강의는 홍민기 목사(호산나교회)가 “수요예배를 통한 예배갱신과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홍 목사는 “부임 후 무너진 영적 질서를 세우고 원로목사님 사역원을 설립해드리는 것이 임무였다. 특새가 유행인데 기간이 길



홍민기 목사

지 않다. 그래서 수요예배를 부흥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10주 시리즈 설교하겠다고 공포했다. 평상시에 400명 출석하던 수요예배가 첫 주에 3300명, 10주에 5600명이

참석했다. ‘특수’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다. 방언과 치유, 참석자들 모두가 간증이 많았다. 영적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이다. 수요예배가 살면 주일예배가 달라진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 힘을 잃지 말라”고 역설했다.

마지막 날 폐회예배는 천성덕 목사 인도로 기도 조용철 목사(라스베가스 갈보리교회), 글로리아산교중앙단의 찬양, 설교 김홍도 목사, 감사패 증정, 김홍도 목사의 폐회사, 축도 임규명 목사(타코마새생명교회) 순서로 진행했다.

김홍도 목사는 시편 15:1-4절을 본문으로 “부족하지만 진실하고 정직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다”며 간증했다. 김목사는 “진실은 속내이고 정직은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결과 속이 같도록, 처음과 끝이 같도록, 첫 신앙부터 후 신앙이 같도록 노력했다. 코람데오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노력했다. 그러니까 온갖 비난과 핍박이 많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은퇴도 못할 줄 알았는데 종신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목회자는 잔재주 부리지 말아야 한다. 목사가 명칭해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 진실해야 한다. 이번 세미나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한다”고 말했다.

(15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The Korean Christian Press ■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영어실력은 물론 영성과 리더십까지 모두 해결되는

영어설교 세미나

세미나에 한 번만 참석하시면

가장 쉽게, 빠르게, 정확하게 영어를 쓰고 말하고 듣기 시작합니다.
당신도 영어로 설교 할 수 있습니다.

강사
정영진 박사(PEP저자)
- 한남대학교 영어영문과 학사
- Oral Robert University 석사
- Midwest University Leadership 박사

저서
- 사람이 모이는 리더, 사람이 떠나는 리더
- 사람이 따르는 리더, 행복을 부르는 리더
- 광양수어
- power English Preaching
- The Story of God
- The Story of Jesus

영어 설교 세미나 특징

- 언어의 구조와 원리를 풀어내 누구든지 강의를 듣는 순간부터 영어로 쓰고 말하게 된다.
- 어렵고 어색하게만 느껴졌던 발음을 다섯 가지의 원리로 이해시켜 누구나 정확한 발음을 구사할 수 있다.
- 영어를 쉽게 그리고 단순 반복을 통해서 자신감을 높여주며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수준으로 발전한다.
- 성경 말씀을 통한 영어교육으로 성서신학과 성경의 세계를 깊고, 넓고, 높게 영어로 정리했다. 따라서 영어 초보자들도 아주 쉽고 재미있게 습득한다.

주관: I.E.A Education Dep.
문의: 636-639-9221 info@ieawm.org

□일시 1차: 2012년 6월 5일(화) - 8일(금) LA지역 (코너스톤 교회)
2차: 2012년 6월 11일(월) - 14일(목) 워싱턴지역 (미드웨스트 대학교)

□시간 주간반: 오전 9시 - 1시 야간반: 오후 6시 - 10시

□장소 1차: LA지역 (코너스톤 교회) (Cornerston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2차: Washington DC 지역 (Midwest University)
7620 Little River Tnpk \$400, Annandale, VA 22003

□비용 등록비 30불, 수강료 240불 (5월 11일까지 등록자 210불)
* 첫날 강의를 들으신 후 강의를 만족하지 않아 나머지 강의를 참석하지 않을 경우 수강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대상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영어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모든 분들

가슴-머리-손-습관 균형 맞춰라!

리더십 저널, 켄 블랜차드·필 하지스의 '섬기는 리더 예수'(The Servant Leader) 원리 소개

예수처럼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슴, 머리, 손, 습관 등 네 가지 리더십 영역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 가슴속에 품고 있는 동기와 머릿속에 들어 있는 리더십 관점은 내적 영역에 해당한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 이런 자신의 동기와 관점을 감추거나 과장한다. 리더로서 공식적 행위를 의미하는 손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 경험하는 습관은 외적 영역에 해당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리더의 외적 영역을 보고 그를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한다. 가슴, 머리, 손, 습관에 균형을 맞춘다면 놀라운 정도의 충성심, 신뢰, 생산성이 뒤따르게 된다. 반면에 이들 간의 균형이 잘 맞지 않으면 좌절감, 불신, 장기적인 생산성 후퇴가 뒤따른다.



있는가? 누구를 따르는가? 자기중심적인 리더는 가슴 속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하나님이 이외의 다른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밀어낸다.

그러나 하나님을 밀어내면 두 가지 예고(eg) 문제와 직면하게 된다. 즉 그릇된 교만과 두려움이다. 교만과 두려움은 고립, 비교, 진실에 대한 왜곡을 부른다. 우리의 리더십의 예고를 제단 위에 올려 놓고 하나님만 찬양할 때, 그릇된 교만과 두려

그 관점이란 바로 섬기는 리더십이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 치를 땀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 주려고 온 것이다"(막10:45)라고 말한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섬기는 리더십의 두 가지 측면은 다음과 같다. 비전 제시의 역할로, 진로와 목적지를 정한다. 수행의 역할로 섬김에 초점을 맞추고 옳은 일을 행한다.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면 전통적인 피라미드 형태의 계급 구조

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하여 제자들을 가르침으로써 이 세상의 사명을 마친 후에도 그들이 예수님의 비전을 계속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원칙은 모든 조직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삶의 역할 리더십 관계에도 적용된다. 가족관계에서 이들 원칙은 가치관과 행동 지침 설정부터 정신이 온통 한 데 슬러려 있는 시대 아이에게 깨끗한 방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 변호하도록 이끄는 과정에서 리더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다. 따르는 사람들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습관 여기서 습관은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리더가 되겠다는 다짐을 매일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강요나 시련, 유혹을 뿌리치고 섬김의 자세를 유지했던 예수님은 어떻게 열정을 다시 불태우고, 섬기는 리더십의 관점을 유지했을까? 비결은 바로 그의 습관이었다. 항상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응답하며, 가깝게 지내는 몇몇 사람들과 도우며 나누는 유대감을 통해 예수님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충전하고 자신을 새롭게 다져 나갔다. 이 습관을 익히는 것은 예수님을 리더십 역할 모델로 삼으려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새소망 칼럼

헤어진 후에도 그리움이 남는 사람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를 헤어진 후에도 보고 싶은 그리움이 남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노라"(딤후1:3-5)는 말로써 표현했다. 여기서 네 눈물이라는 디모데가 흘린 눈물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과 작별할 때 디모데가 바울을 염려하여 흘린 눈물이라는 것이 주경학자들

의 일반적 견해이다(행20:37). 바울과 디모데가 헤어질 때는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던 때였으니 바울이 항상 체포될 위험 속에 있었고 따라서 그를 떠나보내는 사람들은 바울을 염려하게 되었고, 디모데도 그 때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너 보기를 원함"이라고 한 것은 당시 바울은 감옥에 투옥되어 언제 죽임을 당할는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중에 처해 있었고, 이런 저런 이유로 자기와 함께 하던 동역자들도 거의 다 곁을 떠난 가운데 인간적으로 외롭기가 그지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를 믿고 존경하고 따르며 친 아들처럼 섬김껏 보살피고 도움을 주던, 인정 많고 헌신적이고 진실하고 이해와 배려하는 마음이 넓은 디모데, 신앙심이 깊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 디모데를 그리워하며 만나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고 그로 인해 기쁨을 얻고자 소망했던 것이다. 바울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디모데의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과 순수한 애정을 생각하니 마음이 더욱 그에게로 끌려 그를 보기를 원했고, 그를 만나봄으로써 가슴에 벅찬 기쁨을 기대했던 것이다. 우리들도 주변의 사람들과 인연가는 불가불(부득불) 헤어질 수밖에 없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이 다음에 헤어진 후에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리움이 남는 사람들이 되기 바란다.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 만난 인연을 흐뭇한 인정, 멋진 인연, 참된 신앙과 순수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기 바란다.

한국의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 걸려있는 예쁜 액자 속의 글이다. "아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 되거라. 많이 사랑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보다는 의미있는 것의 가치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산에 오를 때 제일 앞서 가기보다는 뒤에 처진 이와 동행하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면 빙그레 웃으며 침묵하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뇌성을 발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남의 과오에는 한없이 관용을 베푸지만 자신에게는 냉혹한 원칙을 적용하는 사람이, 아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 되거라. 훗날 서로 헤어져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도 눈물나게 보고 싶은 그리움이 남는 그런 사람이, 무엇인가 좋은 것을 이루려는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참으로 좋은 내용의 글이다. 이 글을 한 번 읽어본 사람에게 두고두고 마음속에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말은 "훗날 서로 헤어져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도 눈물나게 보고 싶은 그리움이 남는 그런 사람"이라는 구절이라고 한다.

사람은 만났다 헤어지고, 헤어졌다가 또 만난다.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는 간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좋다가도 헤어질 때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 반대로 처음 만났을 때는 그저 그랬는데 헤어질 때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가하면 헤어지고 나서도 별로 기억이 남지 않는 사람이 있고, 세월이 흐를수록 눈물나게 보고 싶은 그리움이 남는 사람이 있다. 바울은 일평생 복음 증거에 앞장서 헌신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했다. 나 자신도 일평생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대했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도움도 받고 사랑도 받고 협력도 받았다. 그 가운데 바울처럼 눈물나게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은 바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거짓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 같은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가족처럼 형제처럼 여기고 혹은 부모처럼 스승처럼 대하고 믿어 주고 도와주며 목회자가 잘되도록 기도해주고, 시간, 재능, 물질로 많아서 후원해주고 분별이다. 우리 모두 은혜 받고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닮아서 "훗날 헤어진 다음에도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눈물나게 보고 싶은 그리움이 남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쓰기 바란다.

'피드백에 대한 반응' '후계자 계획' '하나님 따르기'가 기준 내적 외적 영역 균형 맞추면 충성심, 신뢰, 생산성 뒤따라

인 리더인가" 하는 것이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 하늘나라에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명령한다(마 20:20-28). 그리고 예수님은 수건과 대야를 갖다 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요13:3-5).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남을 섬기는 행동으로 리더십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약 리더로서 가진 동기가 불분명하거나 자신의 이기심을 정당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자신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러내야 바로 잡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행동 유형을 파악하면, 섬기는 리더와 자기중심적 리더의 차이를 알게 된다. 다른 사람의 피드백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후계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움을 겸손과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생기는 자신감으로 바꿀 수 있다. 예수님처럼 리더십을 발휘할 때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리더십을 발휘하는 중요한 요소, 즉 용서와 자비를 우리의 관계에 임하도록 역사하신다.

머리 예수님처럼 리더십을 발휘하기까지의 여정은 동기를 품은 가슴에서 출발해 또 하나의 내적 영역인 머리를 통과한다. 머리에서는 사람들을 이끌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된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점검해야 한다. 모든 위대한 리더는 자신만의 독특한 리더십 관점을 통해 자신이 영향을 미치려는 사람들에 대한 그 자신의 역할과 관계를 들여다본다. 이 세상에 머물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관점을 가르치고 이를 강조했다.

는 역전된다. 명확한 비전 수립과정에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앞서 먼저 우리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섬기는 리더십은 비전을 품고 시작하여 사람들이 그 비전에 따라 살도록 도우려는 섬기는 마음에서 끝이 난다.

손 리더십에 관한 동기와 믿음이 우리의 행동(손)을 통해 나타날 때 사람들은 우리 가슴과 머리에 든 생각을 알게 되고 이를 주시하게 된다. 섬기는 마음과 리더십의 관점을 가졌다면 수행 코치가 될 수 있다. 수행 코치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일의 수행 정도를 관찰하고, 이루어 낸 성과를 칭찬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아 주는 역할을 한다. 수행 코치는 좋은 성과를 거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를 요구할 때 그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의 우선순위는 정보, 개인적 측면, 실천적 측면, 영향, 협력 수련이다. 예수님처럼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 영적, 현실적, 리더십 전통의 측면에서 이익을 얻는다.

영적 관점에서 볼 때 섬기는 리더십은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존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본보기로 한다.

현실적 관점에서 볼 때 섬기는 리더십은 더 나은 서비스와 리더십을 제공하고 성공과 삶의 의미를 일치시킨다.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께 바치는 관계 속에서 그분께 한 걸음 다가갈 때만 예수님처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긍정적 리더십 전통을 남기게 된다.

4.29 폭동 20주년 기념 | 4.29 RIOT 20TH ANNIVERSARY

남가주 영적대각성 집회

치유와 화합과 은혜가 넘치기를!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1992년 4.29 폭동.. 아직까지도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치유와 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4.29 20주년을 맞이해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주관으로 남가주지역에 영적대각성집회를 열고자 합니다. 전주바울교회를 섬기시는 원팔연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치유와 화합을 위한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열리는 영적대각성집회에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강사: 원팔연 목사

현 전주 바울교회 담임목사
현 풀러턴 바울신학교 학장
현 세계 원주민 선교회 이사장
현 CBS 재단 이사
현 CTS TV 전북방송 본부장
전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교단 총회장
전 서울신학대학교 이사장
전 우간다 쿠미대학 총장

□일 시: 2012년 4월 25일(수) ~ 4월 29일(주일)
□장 소: 나성순복음교회, 주님세운교회, 은혜한인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열반인침례교회, 바울교회
□강 사: 원팔연목사(전주 바울교회)
□문 의: 총 무: 박세헌 목사 (323)404-3147 사무국장: 양경선 목사 (213)255-1725

집회일정

4월 25일 (수) 저녁 7시 30분		나성순복음교회(담임:진유철 목사)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323)913-4499 www.kitgc.com
4월 26일 (목) 새벽 5시 30분		주님세운교회(담임:박성규 목사)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4월 26일 (목) 저녁 7시 30분		은혜한인교회(담임:한기홍 목사)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714)446-6200 www.gracemc.com
4월 27일 (금) 새벽 5시 30분		남가주사랑의교회(성암:고석찬 목사)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714)772-7777 www.sarang.com
4월 27일 (금) 저녁 7시 30분		열반인침례교회(담임:한중수 목사)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949)857-9425 www.irvinechurch.com
4월 28일 (토) 새벽 6시 20분		바울교회(담임:이경휘 목사) 18422 Bloomfield Ave, Cerritos, CA 90703 (565)565-9393 www.paulchurch.com
4월 28일 (토) 저녁 7시 30분		
4월 29일(주일) 오전 11시 30분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빛과소금으로...

엄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더 큰 기쁨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이유는 크게 삼백 종류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선한 일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일을 통해 얻어지는 기쁨은 선물을 받을 때의 기쁨보다 더욱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통해 남을 소중히 여기게 되지만 결국은 자신의 존재

감과 성취감으로 뿌듯해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 교회 학교 선생님께서 반 아이들에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한 가지 착한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일주일동안 살면서 착한 일을 하고 그것을 노트에 적어 내면 상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착한 일을 하기 위해 평소에는 등한시 했던 청

소하기, 심부름하기 등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착한 일을 한 아이들을 선별하여 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세브란스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900년 미국 콜리블랜드의 부호였던 세브란스씨가 세브란스 병원의 건립기금이 될 막대한 돈을 헌금하자 에비슨씨가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이 때 세브란스씨가 한 답변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더 큼니다." 자발적으로 사회를 위해 선한 일을 베푸는 행위는 그 일을 통해 기쁨과 만족를 느낄 수 있었지만 형식과 가시적인 선한 일은 허영심에서 일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프랑스어: Noblesse oblige, IPA: /nobles obliʒ/)란 프랑스어로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와 사회 지도층

은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도덕성을 요구하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기록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어원은 이렇습니다. 14세기 백년전쟁 당시 프랑스의 도시 '칼레'는 영국군에게 포위당하게 된 때입니다. 칼레는 영국의 거센 공격을 막아내지만, 더 이상 원병을 기대할 수 없어 결국 항복을 하고 맙니다. 후에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에게 자비를 구하는 칼레시의 항복 사절단이 파견되지만 접령자는 "모든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누군가가 그 동안의 반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며 "이 도시의 대표 6명이 목을 매 처형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칼레시민들은 혼란에 처했고 누가 처형을 당해야 하는지를 논의했습니다. 모두가 머뭇거리던 상황에서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인 '외스투스 드 생 피에르(Eustache de St Pierre)'가 처형을 자청하였고 이어 서 시장, 상인, 법률가 등의 귀족들

도 처형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음날 처형을 받기 위해 교수대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임진한 왕비의 간청을 들은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죽음을 자처했던 시민 여섯 명에 희생정신에 감복하여 살려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가에 의해 기록되고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출신하여 병역에 참여하거나 거금을 기부하여 도로를 포장하는 일이나, 공공시설을 보수하는 일을 통해 사회적 봉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이름을 기부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노블레스 오블리

주 전통은 미국에도 전승되어 왔습니다. 미국 법령에 제안자의 이름이 들어가 "매케인-파인골드법"(McCain-Feingold Act) 같이 법률 명칭을 부른다면,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세운 카네기멜론 대학교, 은행가 존스 홉킨스가 세운 존스 홉킨스 대학교 식으로 설립자의 이름을 붙인 대학 등이 현재 미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래 노블리스는 '닭의 벼슬'을 의미하고 오블리제는 '달걀의 노른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를 합성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닭의 사명은 자기의 벼슬을 자랑함에 있지 않고 알을 낳는데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어떤 의무감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합니다. 악이 득세하는 이때 마음 다해 선을 행한다면 메마른 이 시대에 슬픔을 주면 악은 떠나고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푸/ 른/ 초/ 장

김충한 목사 (넘치는교회)



동부에 가면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1,2차 세계 대전과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등을 통하여 순국한 군인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의 묘지도 있습니다. 케네디를 비롯하여 여러 용사의 묘에는 이름이 새겨진 묘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쫓하게 하는 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무명의 용사들의 묘입니다. 그들도 나라를 위하여 피 흘려 싸웠지만 시체조차 찾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로보트 같은 군인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밤낮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킵니다. 그리고 커다란 관 모양을 한 직사각형의 대리석 통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But, God knows.'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많은 말 많은 글로도 감명을 주지 못할 때가 있는가 하면 짧은 말 짧은 글이 감명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온몸에 전율을 느낄 정도로 감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받

았습니 다. 그런 바울도 고린도 일 부 사람들로 부터 배척을 받을 때 가 있었습니 다. 이것이 이 서신서 인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에 바울 이 직면한 문제였습니 다. 교묘하게 바울을 비방했던 자들 이 공격의 무기로 바울의 진실성을 말합니 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가 아닌 가짜라는 것입니 다. 그리고 그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 았다는 것이었으며, 또 하나는 돈 을 탈취하여 자신의 사비로 충당 했다는 것이 었습니 다. 이와 같이 어처구니없는 비난을 받게 되니 가 고린도 교회의 착한 교인들이 동요되고 갈광질광하는 현상이 있게 되어 그는 자신을 위 한 변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로서 주님께 누가 될까 해서 전혀 마음에는 없지만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크고 작은 은사를 상 기 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 다. 바울을 비방하는 일에 적극 가담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자신에 대한 말을 하면 그들은 말하기를 "바울은 자랑꾼이다" 라고 몰아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보라, 바울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 다. 그때 바울은 여러 말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다가 한 마디로 일축 하고 맙니 다.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는 큰 아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

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며 모두가 알아주지 않았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게 하셨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 다. 첫번째 부인은 한나요 두 번째 부인은 브닌나 었습니 다. 둘째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 었습니 다. 자식 없는 것으로 인하여 브닌나에게 무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합니 다. 그 한나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브닌나 나 괴롭혔는지 성경은 표현하기를 그 대적 브닌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당했던 억울함을 하나님께 다 털어 놓으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점잖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때로는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바닥을 구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자 한나의 마음을 누가 알아 줍니까? 남편이 알아 줍니까? 브닌나가 알아 줍니까? 그렇다고 제사장 엘리가 알아 줍니까? 한나의 마음을 알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상1:19에 보면은 요 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만나면서 삼니

다.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되고 기쁜 일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우 중 어떤 이는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 고생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남편이나 아내가 병으로 인하여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인 문제로 고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만나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에게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능능하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사야 49:14-16]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고 잊으셨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느냐" 젖을 먹이는 아기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잊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혹시 젖먹이는 엄마가 아기를 잊을 까라도 우리의 머리털 까지 세시고 눈동자 같이 아끼시는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의 억울함과 수고와 충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알았기에 자신을 향한 공격과 박해 속에서도 오직 한마디로 일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한번 더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고후11:7-11

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며 모두가 알아주지 않았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게 하셨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 다. 첫번째 부인은 한나요 두 번째 부인은 브닌나 었습니 다. 둘째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 었습니 다. 자식 없는 것으로 인하여 브닌나에게 무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합니 다. 그 한나의 심정이

혼돈과 공허의 블랙홀 속에 빠져 표류하는 이 시대
여기 영적 전쟁의 근원을 파헤치고
하나님 도성의 거룩한 군사로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는
한 편의 스펙터클한 영화와 같은 책이 있다

거룩한 전쟁 I

소강석

"인류의 첫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과정들을 강해하신 분은 소강석 목사가 처음이라고 본다."
-서철원 전 총신대 신대원장

"목회자인 자의 신학자 못지않은 창의성과 왕성한 학문적 의욕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김민환 전 총신대 총장

견고한 신학적 알개를 바탕으로 구약과 신약을 넘나드는 통전적 주해와 고대 근동 문명을 캔버스로 하여 펼쳐가는 입체적 내러티브는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 마다 거룩한 흥분과 감동을 준다.

오늘날의 모든 설교자와 성도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
2012년 한 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침서!



531면 / 18,000원



소강석 목사

1995년월간 문예시조로 등단하여 한국 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새아침교회 담임목사로 사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2006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선정 출판문화상 최우수상, '미팅 루터 킹 패러이드 집행위원회'가 수여하는 국제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고, 한국기독교선교대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및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정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전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목사의 또다른 저서

- 부르다가 죽을 노래 아가 592면 / 18,000원
- 성소권 352면 / 12,000원
- 베두인의 눈으로 본 시 23편 264면/9,500원
- 꽃을 피우는 건 꿈꾸는 나비 <에스워킹> 344면/13,000원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미국은 이미 최고로 신나는 정치적인 쇼 무대가 시작했다. 대통령 선거 시즌이 본격적인 가동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구도가 윤곽이 잡히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고민이 표출되기 시작한다. 물론 새로운 고민은 아니다.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이 공화당이든지 민주당이든지 관계없이 우리의 고민은 누구를 뽑던지 간에 마음이 시원한 후보가 없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 경선이 뜨거운 공화당 선거를 보면 대세는 샌토롬이 후보 경선에서 중단할 것을 선언한 이후

의자들은 오직 21%가 오바마를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롬니에 대한 복음주의자들의 지지가 있을 것인가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남침례교의 종교자유 및 윤리부의 Richard Land가 잘 표현한다. 그는 롬니 후보가 몰몬교라는 사실은 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아니라고 했다. 롬니 후보가 낙태와 동성결혼에 대해 불분명한 태도를 보여준다는 말이다. 롬니 후보는 2002년 매사추세츠 주지사 선거 출마 당시,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s

에서 끝까지 롬니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비록 7%의 소수이긴 하지만 역시 존재한다. 이것이 당락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롬니를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몰몬교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로 전환하기도 한다. 조엘 오스틴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롬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또한 몰몬교가 기독교'라는 발언을 함으로 큰 논란에 휩싸였었다. Dr. Albert Mohler는 "조엘의 발언은 성경적인 판단의 기준과 신학적 책임을 벗어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조엘이 성경과 몰몬교의 가르침을 안다면 그 둘을 동일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정치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 성경적인 진리를 왜곡되게 표현 할 수는 없다. 프랭크 그레함은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은 몰몬교가 기독교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지명되면 좋은 대통령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롬니는 중요한 신앙적인 이슈들에 대하여 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 복음주의적 후

로 여기는 것 같기도 하다. 오바마의 종교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2010년도에 오바마는 자신이 태어날 때에 무슬림으로 태어났다고 말해서 각종 뉴스의 머릿 기사를 장식하기도 했다. 그의 종교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그는 지난 2년 임기 동안 신앙이 더욱 깊어졌다. 매일 아침마다 힘을 주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가족과 국민을 보살피 주고 자신을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한다"고 밝혔다. 사람들은 오바마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고 정치적인 그리스도인, 심지어는 무슬림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지난해 퓨스터티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종교에 대해 알고 있는 미국인은 1/3에 불과하며 43%는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상은 탈기독교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나의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를 지지하라는 말은 아니다. 이미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활발한 정치참여의 목소리는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적극적인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SPC0316@yahoo.co.kr

Q: 한국에서 세미나에 참석하였는데 한 강사님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말세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개념을 강사가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신부 패러다임이 새롭게 들렸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성에서 이희은

A: 좋은 질문입니다. 성경은 창1-2장에서 그분의 신부로부터 시작하여 계19-22장 "그리스도의 신부"로 마칩니다. 성경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계22:17).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켜 혼인 잔치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시기 원하십니다. 신부패러다임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신부의 패러다임의 첫 번째는 "거룩한 로맨스(Holy Romance)로의 초대"입니다. 신부는 신랑되신 주님을 자주 만나 거룩한 로맨스, 사랑을 나누고 싶어합니다. 녹18장의 과부는 억울한 자기 사정을 재판관 집밖에 가서 매일 고향으로 결국은 허락을 받지만 신부는 다릅니다. 신부는 남편의 집안 내실까지 깊이 들어가 은밀하고 친밀한 로맨스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배는 우리 주님과 친밀한(intimacy)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2. 신부의 패러다임은 아름다움(Beauty)을 소유하려는 열망입니다

거룩한 로맨스의 아름다운 혼인잔치

다. 신부의 아름다움은 크게 3가지 1)마음-인격이 아름답고 성숙해야 품위가 있습니다. 2)외모-화장으로 꾸미고 얼굴을 밝게 합니다. 3)몸-깨끗하게 간수해야 합니다. 즉 거룩성입니다. 영광스러운 신부인 교회가 되게 하기위해 1)말씀으로 깨끗하게 목욕하여야. "골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2)신부 화장을 하여야 함-이것이 바로 신부의 기름부음입니다. 즉, 성령의 기름부음이 필요합니다.

3. 신부의 패러다임의 3번째는 그분과의 혼인잔치(Wedding Supper)를 고대한다는 것입니다(계19:9). 신부는 신랑과 결혼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지금은 신앙이 곧 오실 마지막 시대라는 종말론적인 의식이 필요합니다. 재림을 위해 준비할 것이 2가지 있는데 1)순교적 신앙입니다. 즉 나를 철저히 죽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신앙입니다. 나의 교만, 불신앙, 불순종, 미움, 시기, 다툼 등입니다. 2)선교적 신앙-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그 분은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 교회는 선교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개 교회부흥 위주의 목회보다 선교 중심의 목회가 되어야 합니다.

4. 신부의 패러다임의 4번째는 "신랑의 사랑과 보물이 다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다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렘4:19).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고민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김혜천 목사



로 미트 롬니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거의 확실시 된다. 민주당은 현재의 대통령인 오바마가 후보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확실적이다. 2012년 미국 대통령선거는 오바마와 롬니의 접전이 될 것이다. 벌써 박빙의 싸움이 예상된다. 두 후보간의 지지율의 격차는 한달전의 11%에서 이제 4% 미만으로 변화되었다. 앞으로 선거전을 치르는 동안에 통계숫자는 앞치락 뒷치락을 계속할 것이다.

이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놓고 성도들이 고민하는 것은 공화당의 대선 후보이든지 혹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이든지 두 사람 다 그들이 가진 개인적인, 신앙적인, 혹은 정치적인 태도들에 대한 문제이다.

공화당의 롬니를 지지하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매우 미묘하다.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롬니가 몰몬교도이라는 사실이다. 토빈 그란트는 크리스천투데이의 그의 글 Will Evangelicals Vote for a Mormon Candidate? 에서 복음주의자들의 고민을 지적했다. 그는 복음주의자들의 2/3 는 롬니를 지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72%는 롬니를 25%는 오바마를 지지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분석지 Pew 는 일반 미국인의 평균 51%에 비해서 복음주

Wade, 사생활의 권리가 낙태의 권리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미국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판례)에 대한 최고법원의 결정에 동의, 즉 응급상황에서 이뤄지는 낙태의 권리 증진에 동의한다고 했다. 하지만 2012년 대선 공식 캠페인 웹사이트를 띄웠을 때, 롬니의 낙태에 대한 의견은 뒤집혔다. 미트 롬니 후보는 모든 생명은 수정 (Conception) 이후라고 믿으며, 법이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롬니 후보가 매사추세츠 주지사로 있을 당시 미국에서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화주가 되었다. 이런 기록들은 썩 믿음직하지 않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롬니의 종교적인 배경인 몰몬교에 대하여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몰몬교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질문하기도 한다. John F. Kennedy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에 '가톨릭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비슷한 질문을 했지만 그는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세속화에 물꼬를 텄다.

롬니에 대한 반응은 보통 두 가지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은 불편을 느끼면서도 지지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복음주의나 보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

은 보수적 기독교인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성경적 입장을 대변하는가? 그렇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은 벌써 20개가 넘는 반 기독교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가 재선이 되어 새로운 연방법원 판사들을 또 교체한다면 반 기독교적 흐름은 더욱 속도를 탈 것이다. 오바마는 자신이 제2의 케네디라는 인상을 부각시키려 한다. 그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의 선거공약이기도 했지만 그 약속을 힘을 다하여 지켰다.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안들이 통과한 주들이 6개로 늘어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1년에 한번 드리는 전통적인 예배를 거부하고 6월을 '동성연애자와 양성애자 그리고 성전환자(transgender)의 긍지의 달(pride month)'로 선포하고 백악관에서 동성연애자들이 참석한 기념식을 거행하기도 했었다.

오바마는 반기독교적 혹은 미국의 기독교적 가치관을 벗어나는 발언들로 구설수에 오르곤 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여러 번 'In God We Trust'라는 표현을 기피했다. 그는 자신이 아랍권과 서방을 연결하고 이슬람에 대한 우호적 역할 사명으

정치참여를 했던 복음주의적 교회들은 변화는 정치적 참여보다는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에 교회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다시 깨달았다. 하지만 성도가 정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정치인이 무엇을 믿어도 좋다는 말도 위험하다. 종교나 가치관은 바로 모든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넘어서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하나님은 믿는 자나 싫어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종으로 들어서 쓰신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재판장이시다. 주님은 세상의 군왕과 열방과 족속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신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브갓네살도, 메대 바사의 구드지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예민하게 사용받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고자 한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출에 대한 우리의 참여와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 그것은 미국의 대통령은 바로 세계의 대통령을 뽑는 일이기 때문이다.

(김혜천 목사: 이메일- evdavidkim@yahoo.com)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여름학기 안내

본교 소개 및 특전

- 74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견경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선교학 석사학위 전과목 온라인 강의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 석사과정(M.A.)
- 석박사 통합과정
- 박사과정(D.Min., D.Miss.)

선교학 석사학위를 인터넷으로

-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전과목 온라인 강좌
- 영어/한국어 강의
 - 이수학점: 36학점 (12과목)
 - 대상: 목회자, 여교역자, 사모, 장로, 권사, 집사
 - 특전: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선교학 박사과정 지원시 특혜

LA현지강의 안내

- 일시 : April 10-April 14(4월 10일-4월 14일)
- 과목: DI 804 Philosophy of Ministry(목회철학)
- 교수: Dr. Rock LaGioia, Professor
- 장소: 3102 Wilshire Bl., LA, CA, 90010
- 전화: 213-999-0671, 714-308-7308

여름학기 본교 강의안내

May 21-May 25 (5월 21 - 5월25일)

DI 802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Professor

PM 826 Current Theology Issues (현대신학동향)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Mark Soto, Professor

May 28-May 31 (5월 28 - 5월 31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 (사회조사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Professor

PM 853 Strengthening Spiritual Vitality (영성강화)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John Teevan, Professor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부탄의 동부 보티아(EASTERN BHOTIA)



남쪽으로는 인도와 북쪽으로는 중국과 접하고 있는 부탄은 매우 아름다우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아주 작은 나라이다. 그곳의 경관은 평원, 사막고원과 가파른 습지, 바위산 히말라야 등 매우 다양하다.

부탄인은 또한 천동용의 땅이라는 의미의 "드럭크얄(Drukkyal)"이라고 불린다.

부탄의 사회는 세 가지 주요 그룹이 있는데 그것은 티베트의 보티아, 동부 보티아(또는 샤츨 Shar-chop) 그리고 네팔인이다. 그밖에 다양한 작은 종족들도 있다. 보티아는 부탄의 서방과 중앙부에 주로 집중되었다. 그들은 가장 큰 종족 공동체이며 사회 정치적인 리더들은 대부분 이 그룹에서 나온다. 18세기에 티베트에서 부탄으로 이주해 온 다수의 엘리트들과 티베트 명망자들은 몇 번에 걸쳐 이 나라에 들어왔다. 동부와 중앙의 보티아인들은

대부분 키가 크고 건장하다. 몽골족을 기원으로 하는 그들은 가는 눈과 날따란 광대뼈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독립적이고 쾌활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삶의 모습

동부 보티아인들은 농업을 주로 한다. 그들은 그들의 가족들이 먹을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장시간 밭에서 일해야만 한다. 작물의 일부는 다른 생필품을 사기 위해 시장에 내다 판다. 보티아인들은 쌀과 감자, 야채들을 주요 음식물로 하고 있다. 육류는 소량 섭취할 뿐이며 야크는 가족들에게 우유를 제공한다.

동부 보티아 농작인들은 대부분 작은 부락에서 또는 외딴 집에서 산다. 보다 큰 마을의 집은 밀집돼 지어져있으며 아름답게 디자인돼 가꿔져있다. 집을 짓는 데는 두꺼운 목재를 일반적으로 사용

하며 추위를 막기 위해 진흙 벽으로 울타리를 두른다. 집의 구조는 이중으로 이뤄져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4층 이상이기도 하다. 가족이 있으면 바닥층에서 기르기도 한다. 지붕은 나무 슬레이트로 만들어져 있고 무거운 돌로 덮여져 지지시켜 놓는다.

결혼은 전통적으로 일부일처를 따르며 여자는 약 16세에 결혼하는 반면 남자는 21세까지 기다려야 한다. 형식을 갖춘 결혼식은 하지 않으며 신혼부부는 신랑의 가족과 살 수도 있고 신부의 가족과 살 수도 있다.

동부 보티아 여성들은 화려하고 얇힌 무늬의 직물로 된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 한 장으로 된 긴의 상은 "키라"(kira)라고 불리며 몸 전체를 둘러 감고 한 쌍의 브로치로 어깨 부분에서 고정시킨다. 그리고 키라 위에 작은 자켓을 입는다. 남자는 긴 격자무늬의 의복을

입거나 고스(gos)라고 불리는 옷을 입는다. 낮 시간 동안에는 그 고스라는 옷을 벨트로 묶어서 무릎까지 덮는다. 밤에 잘 때는 그냥 밑으로 내려놓는다. 모자는 좀처럼 쓰지 않지만 사원에 들어갈 때는 남자와 여자 모두 경외의 표시로 어깨에 스카프를 두른다. 스카프의 색상은 개인의 신분제에 따라 다르다.

신앙

티베트의 불교주의(라마니즘)인 "붉은 모자"(Red Hat) 종파는 동부 보티아 사이에서 최대의 영향력을 가진 종교이다. 비록 그들은 거의 전적으로 불교주의이지만 전통적인 티베트 샤머니즘도 일부 혼합되어 있다. 샤머니즘은 보이지 않는 신과 악귀와 조상신의 세계를 믿는다.

대부분의 불교권 가족은 그들의 집 안에 사당을 모신다. 가난한 가

정은 작은 부타 불상이나 사진을 보관하고 있고 부유한 가정은 사당과 같이 정교한 제단, 램프, 향로 등 거의 모든 종교적인 비품들을 빼지 않고 장식한 방을 사용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독립을 위해 투쟁해온 그들의 역사적 배경 때문에 동부 보티아인들은 이방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은 조상의 전통적인 가치를 따르고 매우 보수적이다. 그러나 한편 그들은 현대 의학과 문명의 이기들의 필요성에 의해 보다 변화하기 쉽게 되고 있다. 동부 보티아인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곳 사람들은 여전히 격리돼있고 복음에 저항적이다. 많은 중보와 복음의 노력들이 이러한 분리적인 성향과 전통의 벽을 깨기 위해 요청된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나이지리아, 교회 대상 자살폭탄테러 발생

나이지리아 북부 카두나시의 한 교회가 지난 4월 8일 부활절 축하 예배를 하던 중 자살폭탄테러의 표적이 되어 최소한 38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보안당국 관련자들이 현장에 있었고,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자가 접근하자 급히 접근을 막았으나, 테러범은 접근을 포기하는 대신 그 자리에서 자폭했다. 사망자 외에도 1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또 인근의 Evangelical Church Winning All(ECWA) Good News Church라는 교회건물과 All Nations Christian Assembly라는 기독교 기관 건물, 그리고 인근의 차량과 호텔, 가정집 등이 다소간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주변에는 Redeemed Christian Church of God와 Assemblies of God church 등의 교회도 있었으나 큰 피해는 없었다.



이곳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인 루카 미니아트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보안당국 관계자들은 테러범의 주 목표가 ECWA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폭은 이 교회 건물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져서 보트 기둥에서 이루어졌다. 현장에서 그는 이 교회 건물을 향해 접근했고, 보안요원이 접근을 거부하자 완력으로 보안요원을 미치며 조금이라도 건물에 가까이 가려고 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경찰관까지 그를 저지하기 위해 함세하자 거센 몸싸움을 벌이다가 여의치 않아 자폭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보코하람은 이번 사건에서 보듯 기독교 관련 기관만을 대상으로 테러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들을 불법단체이자 토벌대상으로 보고 있는 정부군 관련 시설, 정부관련시설, 사법관련 시설, 온건 이슬람 단체 관련 시설 등까지 테러의 대상으로 삼고 무차별 테러를 감행하고 있다. 특히 작년 말에는 공공연하게 2012년 동안 공격해야 할 표적 건물과 단체, 그리고 테러 대상 인사들의 목록까지 발표하여 올해의 기독교 관련 박해 뉴스의 최대의 뉴스메이커가 될 것을 예고하기도 했었다.

파키스탄 이슬람 교사, 기독교 학생이 전도

파키스탄에서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는 순교자의 소리 관련 단체 관계자는 최근 파키스탄의 한 아랍어 교사가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찾아와 기독교에 대해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립학교의 교사라고 말했다. 그의 기독교에 대한 관심은 학교에서 그가 가르치는 학생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는 "그 때 그 학생과의 만남이 내 생애 첫 기독교인과의 첫 만남이었다. 나는 그에게 '너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고 물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의 소개로 그가 나가는 교회의 목사님과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목사와 이 교사의 첫 만남은 그리 분위기가 편하지 않았다. 우선 목사 입장에서는 이 교사가 정말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독교를 염탐하고, 사찰하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접근한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몇 차례 만나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됐고, 이 목사는 그가 근무하는 학교를 방문하기도 했고 학생들을 위해 연필과 공책 등을 기증하기도 했다. 이 날 두 사람은 두 시간 이상 기독교와 이슬람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고, 교사는 성경을 한글 구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이 교사는 성경을 한절 한절 읽으면서 대화중에 목사가 이야기한 말의 의미를 확인해 내었다.

그리고 이 교사는 "다음 만남에서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인가에 대한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했으며 이제 다음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 만남은 견고한 이슬람 신앙을 가진 이를 상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자칫 목사와 교회가 큰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도 있다. 때문에 이 만남을 앞두고 목사는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

북미교회 현금 감소 추세

미국과 캐나다 교회의 현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캐나다 교회 2012년 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현금은 총 290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약 12억 달러 감소했다. 신자 1인당 2.2% 정도 현금이 감소한 셈이다. 전년도 보다 현금 감소액도 증가했다. 전년도에는 현금 감소액이 4억 3천 1백만 달러였던 데 비해 세 배 이상 감소액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연감 편집장 에일린 린드너 목사는 "보고된 기간 중 심각한 경제 위기의 영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를 막론하고 미국 최대 교단들 모두 교인 인구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25개 교단들의 교인 인구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체 감소 인원은 1억4천570만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15% 감소한 수치다. 미국 내 개신교 최대교단인 남침례교(SBC)는 지난해 성도가 1,610만 명으로 1% 감소했다. 남침례교는 4번째 교인 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북침례교회는 가장 큰 폭으로 성도 수가 감소했다. 북침례교회 교인은 430만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5.9%가 감소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6개 교단만이 교세가 증가했다. 이 중 4개 교단은 오순절계 교단으로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오순절 교단의 성장을 증명했다. 특히 세계 오순절성회(PAW)는 20% 성장률을 보였다. 이 밖에도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안식일교 등도 성장률을 보였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이 연감은 228개 미국 교단들로부터 수집된 수치를 집계한 것으로, 미국교회협의회(NCC)에 의해 발간되며 교회 인구에 관한 가장 권위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중국 공산당원 기독교 신자 증가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를 믿는 당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품고 있다. 규정상 당은 당원들의 종교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간부급 당원들 중에서도 특정 종교를 믿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전과는 달리 공산당원이 되고, 공산당에 가입

하는 이유가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고 추종하며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이상사회를 만들겠다는 신념과 소신에서가 아니라, 대개는 개인의 출세와 경력 쌓기를 노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공산당은 각 종교를 믿는 인구를 1억 명 가량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로는 2-3억으로 보고 있다. 이는 불교, 도교, 기독교, 카톨릭, 이슬람 등을 합친 숫자이며 여기 에다가 전통적인 조상숭배까지 감안하면 종교인구는 전인구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는 중국 정부의 종교정책 변화도 작용하고 있다. 공산당 정부가 종교를 장려하거나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에 주목해 지역 정부 단위로 각 종교 사원들을 복원하고 신축하고 있다. 또 종교기관들이 지역민에 대한 교육과 의료 등의 봉사를 하는 대신에 당국으로부터 면세혜택을 받거나 비공식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공산당은 어디까지나 공산당인자라 당원이 종교활동을 하는 것을 장려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 6명당 1명이 종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기독교인 당원도 200만 명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내에서도 당원의 종교활동에 대한 논란은 분분하다. 가장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당 연합전선노동부의 주웨이런 부위원장은 당원의 종교활동이 마르크스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당도 분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원들 가운데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다소와 비중에 따라 당의 종교에 대한 원칙까지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당내에서도 실력을 얻고 있다. 2012년의 가을의 정권교체까지는 과도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부간 보수적인 견해가 득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다가 서구 제국주의와 기독교와 연관된 근원 대사에 대한 중국인들의 거부감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젊은 당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한 기독교인 당원의 경우는 어려서부터 기독교인이면서도 취직과 사회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아버지의 권유로 입당한 경우이다. 당원이든 비당원이든 중국의 젊은이들은 당원이 되는 것을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출세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산당원이라는 신분과 기독교인이라는 신분을 겸하여 유지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টে모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복음이 동성애자를 구원한다 (상)



정호영 (은혜한교회 목사, 선교 전도사)

독자기고

지금 미국에서는 동성애 합법화 문제로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동성애자들은 정부가 동성애를 보장하라고 과격하게 운동하고 있다. 이를 반대하는 자들 특히 복음주의자들은 그렇게 되면 나라의 윤리가 망가지고 청소년들이 불행해진다고 외친다.

성경 창세기에 하나님은 첫 5일 동안 필요한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1:27),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1:28) 또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1:31)고 감탄사를 사용하셨다. 이 장면에서 필자는 하나님의 창조적 의도에, 사람들이 즐겁게 살도록 오늘 날 남녀의 성적관계를 포함한 모든 축복을 선포하셨다고 믿는다. 후손을 생산하는 생식관계와 부부로서 사랑을 즐기며 친밀한 성관계를 축복하셨다고 믿는다.

그러나 성경에는 결혼한 부부 외의 성관계는 금했다. 하나님은 동성애, 간음, 강간, 집단과의 교합 등을 아주 싫어한다고 기록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레 20:13)라 적혀 있다.

성경에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알고 동성애 과격파들은 이를 뚫고 나갈 전략적 계획(Strategic Agenda)을 세웠다. 그들은 세계 각국의 동성애자들을 내세워 정부보장(State's Endorsement)을 급하게 확보하려고 뛰고 있다. 그 결과 과격파들의 동성애 운동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동성애 과격파들의 결사적 확장 운동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필자는 복음전파를 위해 복음사역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도 동성애 못지않게 급진적이다.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급진성을 배운 것이다. 예수님은 어부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이는 생업을 뒤엎는 급진적 명령이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과격한 명령이지만 말없이 주님을 따랐다.

예수님의 급진적 복음은 제자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러도 그들은 무조건 주님을 믿고 나섰다. 이는 그들의 철저한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이 충만한 전도와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에 이르렀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과 치유도 할 수 있었다(행2:42-47).

그러면 오늘의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의 말씀이 불변한 데 달랠질 까닭이 없다. 오늘도 같은 복음을 전파하려면 우리도 목숨을 걸고 나서야 한다. 필자의 경우 2005년에 생업과 세상 활동에서 완전히 은퇴하고, 오직 천국의 한 임금만 섬겨오고 있다.

이제 필자는 “복음이 동성애자를 구원한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증명하는 논문을 썼다. 그 중에서 마지막 부분인 “예수사랑이 동성애와 정체성회복으로 축복한다”는 주제의 글을 본 지에 기고한다.

1. 동성애 유혹초기에 부모-자식과의 정체성 바로잡기

게리 콜린스(Garry R. Collins)는 유명한 저서 “Christian Counseling”에서 동성애는 성적 발달이 중지되어 생겨났다는 프로이트의 관점에 동의한다. 게리는 정신분석학 저술가들도 동성애 남성성은 보통 약하고 수동적이며 종종 아버지가 없거나 무능하거나, 아니면 아들이 어머니의 독단적인 가정에서 자란다는 결론에 동의한다. 그런 가정의 어머니는 보통 아들을 어머니에게 수동적이며 헌신하도록 교묘하게 가르친다는 것이다.

게리는 그렇게 되면 “아들에게는 남이 따를 만한 남자다운 강성

기질이 없고, 그가 여자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친구들보다 덜 유능하다는 모습을 풍기게 된다. 결국 아들은 자신의 남성다움에 자신감을 잃고 여성과의 친밀한 관계에 두려움을 느낀다. 그런 가정의 딸들도 아버지에게 거부감을 느낀다. 따라서 딸들은 남성들과 관계할 기회가 거의 없다. 딸들은 여들과 더 잘 어울린다”고 하였다.

정신분석 전문가 조셉 니콜로시(Joseph Nicolosi)는 “동성애가 거의 항상 부모와 아들 사이에서 생겨난다고 믿는다.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관계는 보통 공격적이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자 관계의 기술력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정신적 쇼크를 느끼면 아들이 깊은 정신적 장애를 받게 된다.

현대의 아버지들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집에 있다. 엄마가 아버지에게 이야기 해준다. 부자의 관계가 왜곡될 수도 있다. 아들은 엄마의 여성에 더 호감을 갖게 된다. 게이 동성애 여성 파트너 기질로 발전할 수도 있다. 동성애 예방을 위해서라도 크리스찬 가정환경을 건전하게 조성해야 한다. 각자가 주님의 사랑과 인격이 넘치는 정체성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

2. 동성애를 끝내는 다섯 가지 영성 집중훈련이 절대 필요

동성애자들은 성적 황홀감에 잠겨 본래의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이 희미해진다고 한다. 동성애 체험을 오래해온 사람일수록 동성애를 끊기가 어렵다고 한다. 동성애의 유전인자(homosexual gene)라는 것이 타고난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진 것인가? 논란이 아직도 분분하다.

정신의학계에 유명한 제퍼레이 사티노버(Jeffrey Satinover)는 과학자들이 아직까지 동성애

유전인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제퍼레이는 동성애가 선천적이 아니고 변질되는 후천적이라고 한다. 그가 개발한 동성애의 후천적 모델은 습관, 충격 그리고 중독으로 생긴 현대과학과 심리학적 이해에 기초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는 인유가 타락한 성질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정신 병(soul sickness)의 하나라고 정의한다.

세계적 임상심리학자 부부인 조셉과 린다 니콜로시(Joseph/Linda Nicolosi)도 제퍼레이 사티노버의 모델을 인용하며 동성애는 게이 유전자(gay gene)가 없다고 하였다. 마이크 헬리는 동성애를 영원히 끝내는 다섯 가지 보편적인 비결을 소개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다섯 가지 요인을 철저히 훈련시키면 자녀들의 정상 성적 조정(sexual adjustment)이 가능하다고 했다.

첫째, 올바른 동기(A Right Motivation)

게이 생활스타일을 버려야 하는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성의 신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복음을 선택해야 한다. 예수님의 복음은 급진적이다. 나를 포함한 세상과 세상적인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살려면 물론 동성애를 끝내야 한다. 선택이 없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고 믿어야 한다.

열두 해를 혈류 질병으로 앓던 여인이 온갖 고생 끝에 예수님이 이 지방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다. 옷에 손을 대어도 낫는다고 하는 말도 들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모인 많은 군중을 헤치고 나가다가 예수님의 외투자락을 만졌다. 예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기에, 그녀는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엎드려 사실

을 말씀드렸더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찌어다”(막5-29)하셨다.

둘째, 새로운 목표(A New Goal)

동성애를 떠나는 여정에 필요한 것은 인내이다. 인내가 필요한 것은 참 목표이다. 목표까지 인내하며 가야하는 조건은 이성애가 아니다. 이성애가 동성애의 반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새로운 목표는 무엇인가. 동성애의 반대 가 되는 것 곧 완전한 순결(Holiness)이다.

완전한 순결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인간의 한정된 순결 위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결이 보태지는 영적 순결이다. 우리는 이성적 욕구 플러스 완전한 영적 순결로 거룩해지면 행복한 자유로운 순결을 얻기 시작한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 성화의 정도를 평생 밟아가면서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영생을 즐길 수 있다.

셋째, 변화된 관계(Changed Relationship)

게이 혹은 레즈비언 동성애 관계를 끊는데 성공한 사람은 건전한 대인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강한 결심과 헌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특히 자기 일에 공격적이고 정직하고 강한 책무를 가진 사람들이다. 야고보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나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거나 두려움을 느끼더라도 우리가 지난 죄를 고백하면 참된 치유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고백할 때 죄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자백을 그렇게 기뻐하신다.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 교회안내

<p>감사한인교회</p> <p>담임목사 : 김영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평일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p> <p>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 521-0981, Fax: (714) 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p> <p>담임목사 :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lalgcusa@yahoo.com / www.lalgc.com Tel: (323) 913-4499, Fax: (323) 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나성열린문교회</p> <p>담임목사 : 박형성</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2: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0:00 찬양예배: 오후 3:30</p> <p>Tel: (213) 413-1600, (F) (213) 413-1911 1825 Wilshire Blvd., L.A., CA 90057 www.laependoor.org</p>	<p>나성서부교회</p> <p>담임목사 : 이정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p> <p>Tel: (323) 939-7323, (F) (323) 939-1656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Pico/Fairfax)</p>	<p>나침반교회</p> <p>담임목사 : 민경엽</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영양: 오전 5:30 토요일예배: 오전 6:30 EM, 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714) 826-6245, (F) (714) 826-6187 8101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p>	<p>남가주든든한교회</p> <p>담임목사 :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p> <p>Tel: (213) 481-2779 / Fax: (213) 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p>	<p>남가주리더교회</p> <p>담임목사 : 김요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후 1:00 토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www.scrdm.com Tel: (213) 215-8523, Fax: (213) 977-118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p>
<p>남가주사랑의교회</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0 주일 4부예배: 오후 1:10</p> <p>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p> <p>담임목사 : 권영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저녁 8:00</p> <p>Tel: (310) 719-2244, Fax: (310) 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등문교회</p> <p>담임목사 : 최태우</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p> <p>Tel: (213) 483-6625, Fax: (213) 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p>	<p>디아스포라선교회</p>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전영희 목사</p> <p>“세계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일하는 선교회”</p> <p>목회: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p> <p>Tel: (213) 559-7728 / Fax: (213) 263-6102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8 L.A., CA 90033 - 기도회 상담: 화-목 오전 10시부턴서 -</p>	<p>드림교회</p> <p>담임목사 : 이성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영양 1부예배: 오전 9:30 영양 2부예배: 오전 11:30 영양 3부예배: 오후 1:30 영양 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Tel: (626) 793-0880, 0200 Fax: (626) 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p>	<p>삼성장로교회</p> <p>담임목사 : 신원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30(토) 수-요예배: 오후 7:30(토)</p> <p>www.samsungchurch.org Tel: (562) 690-9800, Fax: (562) 690-8044 501 S. Lido St., La Habra, CA 90631</p>	<p>미주양곡교회</p> <p>담임목사 :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13)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 평안교회</p> <p>담임목사 : 송정명</p> <p>주일 1부: 오전 8:30 (영양)부: 오전 9:45 3부: 오전 11:15 (청년부)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p> <p>www.miloopeacechurch.org Tel: (213) 381-2202, Fax: (213) 2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방주선교회</p> <p>담임목사 : 박동서</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교사) 주일 2부예배: 오전 9:00(대학)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대학) 주일 4부예배: 오전 5:00(청년)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5738 Marconi Ave., Carmichael, CA 95608 Tel: (916) 482-8800, 4960 / Fax: (916) 482-5571 Web-site: www.arkmissionchurch.org</p>	<p>베델한인교회</p> <p>담임목사 : 손인식</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청년) 영양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후 1:30</p> <p>Tel: (949) 854-4010 / E-mail: bethe@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p>	<p>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p> <p>담임목사 : 임건택</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오전 6:30(토)</p> <p>Tel: (604) 584-5780, Fax: (604) 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p>복음장로교회</p> <p>담임목사 : 김상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562) 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브리지교회</p> <p>담임목사 : 장세정</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30(토)</p> <p>Tel: (626) 339-6177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p>	<p>세계비전 교회</p> <p>담임목사 : 김재연</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9:00 영양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15(월-토)</p> <p>Tel: (818) 363-5887, Fax: (818) 368-9883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p>
<p>세계소망교회</p> <p>담임목사 :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13) 745-9191(CH), 사택: (818) 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새창조교회</p> <p>담임목사 : 정병재</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p> <p>Tel: (310) 325-0501, Fax: (310) 325-4282 23814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p>	<p>안디옥장로교회</p> <p>담임목사 : 지윤성</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Tel: (818) 249-2871, Fax: (818) 249-0516 www.laopc.org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p>	<p>얼바인침례교회</p> <p>담임목사 : 한중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영양예배: 오후 5: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irvinechurch.com Tel: (949) 857-9425 / Fax: (949) 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p>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p> <p>담임목사 : 엄영민</p> <p>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영양예배: 오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30(토)</p> <p>Tel: (714) 891-2029 / Fax: (714) 373-6412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p>	<p>요셉선교회</p> <p>담임목사 : 정성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Tel: (213) 245-4090 2728 James M Wood Blvd., L.A., CA 90006</p>	<p>일서크리스천교회</p> <p>담임목사 : 엄규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영양)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학부)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8:00</p> <p>Tel: (213) 384-4272, Fax: (213) 384-9838 634 S. Normandie Ave., L.A., CA 90005</p>
<p>은혜한인교회</p> <p>담임목사 :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세계기도회: 365일 24시간</p> <p>www.gracem.com Tel: (714) 446-8200, Fax: (714) 446-8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인랜드교회</p> <p>담임목사 : 박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30(토)</p> <p>Tel: (909) 822-2324, Fax: (909) 822-1480 1101 N. Glen Ave., Pomona, CA 91768</p>	<p>주님의영광교회</p> <p>담임목사 :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3) 749-4500, Fax: (213) 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c.org</p>	<p>창대교회</p> <p>담임목사 : 이준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4: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www.gpc.com Tel: (909) 388-2840, Fax: (909) 388-2941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p>	<p>코너스톤 교회</p> <p>담임목사 :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cornestonew.com / e-mail: pastor@aconerstone.com Tel: (310) 530-4040(OH), Fax: (310) 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p> <p>담임목사 : 김바울</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금요일예배: 오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p> <p>www.torancecp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Fax: (323) 665-0046 ■ N.Y.: Tel: (718) 886-4400 Fax: (718) 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85. 성경의 궁금종(6)-지구를 덮었던 노아홍수의 물은 어디에 있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노아홍수는 신화처럼 생각되고 있다. 특별히 이성을 사용하여 학문을 하는 수많은 신학 교들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믿음이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먼저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일 것이다. 성경을 제외하고는 그런 대규모의 사건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 평생에 접 앞에 있는 작은 산을 덮은 홍수도 보지 못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기록도 없기 때문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는 기록, 즉 전 지구가 물속에 잠겼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또, 그 많은 물이 어디서 왔으며 지구를 덮었다던 그 물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런 사소한 질문들도 성경의 노아홍수 기록을 사실로 믿지 못하게 하는 의심들 중에 하나다.

노아홍수 때 지구 전체를 덮고 있던 물은 지금 바다에 있다. 지구본에서 지구 표면을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과서에서 암기식으로 배운 바다 70% 육지 30%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없을 것이다. 바다 면적이 육지 면적의 2배가 넘는다. 또 산의 높이와 바다의 깊이는 어떤가? 가장 높은 산은 8,850미터인 에베레스트인데 가장 깊은 바다는 필리핀 근처의 태평양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로 총 깊이 11,000미터나 되며, 육지의 평균 높이는 840미터인데 반해 바다의 평균 수심은 3,800미터나 된다. 그러므로 산을 깎아 바다를 메우고 평평하게 한다면 지구는 약 2,400-2,600 미터 두께의 물로 덮이게 된다. 이 물이 바로 노아홍수 때의 물일 것이다.

물은 수증기나 얼음으로 변하기는 하지만 지구 전체에 수증기와 얼음의 양은 바닷물에 비해 무시할 만큼 적다. 방하나 지하수의 양도 적은 양은 아니지만 바닷물 양에 비하면 역시 무시할 만큼 적은 양이다. 그러므로 노아홍수 때 지구를 덮었던 물들은 지금 거의 모두 바

다에 있으며 노아홍수 당시 평균 물의 깊이가 2,400-2,600 미터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 상황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창조 둘째 날 공장 위의 물과 공장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였지만 아직도 지구는 물에 완전히 잠겨 있어서 창조 셋째 날까지는 물이 드러나지

산 깎아 바다 메우면 약 2,400-2,600미터 두께 물로 덮여 대륙부분의 용기와 지구판 움직임은 인정하나 속도엔 이견



노아홍수의 물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대양의 물은 지구를 약 2600 m 두께로 덮을 수 있다.

않았다. 노아홍수의 심판 사건은 지구가 바로 이런 상태로 약 5개월 동안 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다는 성경의 기록이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노아홍수는 물만이 아니라 지구 곳곳에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화산 폭발 등의 대 격변이었음을 남겨진 증거인 전 세계적인 거대한 지층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두껍게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이 어떻게 다시 바다로 모이게 되었을까? 창조과학자들은 두 가지 지질학적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첫 번째는 대륙 부분이 용기하는 것이다. 대륙이 용기했다는 설명에 반대하는 과학자들은 없다. 히말라야 산맥에서도 물고기 화석과 수중 생물 화석이 발

견되고 있는 사실이 대륙이 용기했다는 증거들 중에 하나다. 문제는 그 용기 속도인데 진화론적인 학자들은 현재 용기하는 속도와 비슷하게 점진적으로 수천만 년 동안 용기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러 겹의 두꺼운 지층들이 한꺼번에 휘어 있는 습곡을 본다면 그 지층들이 같은 시기에 생겼을 뿐 아니라 아직 굳기 전에 동시에 움직였다는 것을 누구도 알 수 없다. 그 지층들은 노아홍수 초기에 생겼으며 노아홍수 후기에 용기하거나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판(지판, earth plate)들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판들이 서로 부딪힐 때 생겨난 구조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노아홍수 후기에 물이 바다로 모이게 되는 두 번째 방법은 지구 판들의 움직임이다. 예를 들면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같은 대륙이었는데 대륙 아래 판이 움직이자 한 대륙이 둘로 나뉘게 되었다. 이렇게 나뉘어진 틈은 낮고 넓게 되어 지금의 대서양이 되었다. 다른 대양들도 이렇게 형성 되었다고 믿고 있다. 이 설명에 대해서도 모든 과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나 속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른 의견

(seas)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노아홍수에 대한 기록을 보면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일 동안 밤과 낮이 비가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현재 공중에 떠 있는 수분의 양은 지구 5cm 두께로 덮을 수 있을 정도밖에 없다고 한다. 소나기로 내린다면 한 두 시간이면 끝이 날 것이다. 그러므로 홍수 당시 내린 비의 양은 상당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성경은 노아홍수를 설명하면서 하늘에서 내린 비보다 먼저 모든 깊은 샘들(all the fountains of the great deep)이 터졌다고 기록하였는데 이것이 지진과 화산 폭발을 그리고 쓰나미를 동반한 물의 넘침에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홍수가 끝날 때 하나씩에서는 이 깊은 샘을 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다(창8:2). 그러므로 노아홍수의 심판에 사용되었던 물의 근원은 바닷물, 깊은 샘의 물, 그리고 하늘의 창들을 통해 40일 동안 내린 비로 지금 대부분 바다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다.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厭一見)'이란 말이 있다. 창조과학 강연을 들어도 현장을 직접 보게 되는 탐사여행을 경험하지 못하면 노

권/강/칼/럼



이수일 전도사
(레크레이션 치료/ 정신건강 상담가)

확실한 신유 능력이 없으면...

어느 집사께서 여러 해 전 출석하시던 교회의 부흥회 마지막 날 저녁에 식중독으로 인해 엄청난 복통을 경험한 이야기이다. 출석하던 교회의 가을 부흥회 마지막 집회가 끝난 직후여서 집사님은 육체적 고통 이외에도 부흥회에 참가한 (은혜 받은) 많은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상당했다고 한다. 그러나 너무 아프고 화장실에서 구토와 설사를 너무 해버려서 어쩔 수 없이 예배당 바깥의 복도의 소파 위에 거의 실신상태로 누워있었다고 한다.

축도 후 먼저 나오시던 담임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두가 갑자기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되었다. 잠시 후 그는 사무실로 옮겨져 여러분들의 사랑의 돌봄(Care)을 받게 되었다고 했다. 어느 권사님은 먹는 것에 체해서 그렇다고 하시면서 엄지손가락을 바늘로 따셨다. 그러나 별 차도가 없었다고.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소란 중에도 들려오기도 하지만 창자가 찢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은 더해만 갔다.

잠시 후에 집회에 참석하신 어느 구원군 목사님 한 분이 유사한 사례의 치유의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면서 그 집사님을 앞드리게 하고 기도를 하셨다. 그리고 곧 지압을 시작하였다. 지압을 하면서, "아멘!"을 따라 하라고 하셨다. 믿음으로 치유됨을 말하나 고통은 계속 더해갔다고. 갑자기 한데, 믿음과 현실이 심한 고통이 나누어졌다고 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앰블런스를 불러 드릴까요?" 기억으로는 담임목사님의 목소리 같았다고 했다. 집사님은, "예"라고 힘없이 대답한다. 모두들 지켜버린 것 같은 분위기를 어렵게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앰블런스로 병원으로 수송되는 동안 그 집사님은 심한 오한으로 고생을 하였다. 결국, 여러 검사를 통해 새벽녘에 변에서 피가 나와 중환자실로 직행하였고... 5박6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하나님 저 좀 데려 가시죠?"라는 생각도 속으로 일어났다고 했다.

그날 그 집사님의 고통 완화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리고 병문을 해주셨던 많은 사랑에 감사해 하였다. 그리고 솔직히, 우스운 생각도 있다고 했다. "아멘!" "아멘!"하는데 통증은 계속 더 깊어져 가더라는 것이었다. 나를 짓밟을 민이라고 했는데... 그 집사님의 아내의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줄 알았다고 했다. 신유의 의미를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성경 치료 혹은 민속 요법의 낮은 확률이 오히려 생명을 잃게 할 가능성 등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음을 언급했다. 그리고 신자들이 위기 상황을 맞으면 담임목사님께 의지하고 있는데 의학정보의 다양성이나 정확성(예: 위탁치료)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다고 했다.

그 후로 그 집사님은 친구 목사에게 '확실한 신유능력이 없으면 흉내를 내지 말라고 농담을 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리고 위탁을 위한 좋은 의사나 유용한 의료정보(예: Resources)에 관심도 가질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 집사님은 앰블런스를 부를 수 있는 주변의 교인위기관리팀 구성도 권장했다고 덧붙였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p>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영어)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섭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주일 6:00 주일학교예배: 오후 11:00 Tel: (704)-841-0821, Fax: (704)841-1625 목사관: (704)989-4412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p>	<p>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 유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오전찬양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Tel: (303)422-8950, Fax: (303)422-8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43</p>	<p>몽고메일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1부예배: 오전 9:00(한국어) 주일2부예배: 오전 10:15(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한국어)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벤델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한/영):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4)461-1235, Fax: (414)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석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회: 오후 1:30 중요행복: 오전 10:15(한/영) 유지, 유년부: 오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xinton, MA 01748</p>
<p>볼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Tel: (410)337-9448, 882-0181, Fax: 337-9446 1600 Seminary Ave., West, Lutherville, MD 21093</p>	<p>새시온장로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85</p>	<p>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27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p>	<p>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rjcc.org</p>	<p>앵커리지델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엘파소델린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타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p>
<p>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7: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35</p>	<p>큰무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www.josephsvision21.org 매일새벽7시(금, 토, 주일) Tel: (410)203-0516, Fax: (410)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p>	<p>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새벽 6:00(토)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p>	<p>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53)535-6207, 531-8424 Fax: (253)539-1433 9702 E. B St., Tacoma, WA 9844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명 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53)536-6675, Fax: (253)474-9515 www.hwal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p>템파자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주일5부예배: 오후 2:00(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www.lkpcz.com Tel: (480)726-0191, Fax: (480)857-390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p>	<p>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진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30(토) 오전 6:00 Tel: (860)643-4738, Fax: (860)643-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p> <p>아가페선교침례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735-0011 1635-A Palolo Ave., Honolulu, HI 96816</p>	<p>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창현 주일영어예배: 오전 9:00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739-1004, Cell: (808)218-4592 1053 8th Ave., Honolulu, HI 96816</p>	<p>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김순환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토) Tel: (808)277-2936, 557-1778, Fax: (808)947-5151 www.hwalichurch.org 1351 S. Beretania St., Hon., HI 96814</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wal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CRC기도서밋 2012, 정필도 유진소 리처드 마우 목사 등 주강사

북미주개혁교단(CRC 총회장 조 엘부트 목사)은 기도서밋(Prayer Summit) 2012를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대하7:14)라는 주제로 ANC 온누리교회(유진소 목사)에서 본 교단 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장호 목사) 주관으로 성황리에 개최했다. 둘째 날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저녁 집회는 ANC 온누리교회 찬양팀(인도 승광철 목사의 찬양 인도와 박동건 목사(한인사역디렉터)의 사회로 시작돼 정필도 목사(부산수영로교회 원로)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눅 21:34-3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정필도 목사는 "예수님께서 마지

막 때 나타날 환난을 이야기하시며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세상이 극도로 타락해지게 될 신약생활을 똑바로 하기가 어렵게 된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며



ANC온누리교회에서 열린 CRC교단 기도서밋2012에 참가자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있다

깨어있어야 한다.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방황하게 되고 술에 취해 살게 되고 생활에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고 말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 부흥한다. 성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에서 하루에 한번씩 기도하는 운동을 벌이길 바란다"고 기도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번 기도서밋은 개회예배로 시작되어 박장호 한인협의회 회장의 사회, 조엘 부트 총회장이 환영사를

전했으며, 전체집회에서 잔 윌트리 옛 박사(칼빈신학교 교수), 리처드 마우 박사(폴리신학교 총장), 유진소 목사, 윌리엄 다이어네스 박사(폴리신학교 교수), 잔 부이 토기장이의 집 교육감, 정필도 목사, 더글러스 캠프스 목사, 앨빈 밴더그린 커피 브레이크 성경공부 창시자 등이 주강사로 나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소서' '온 세대를 위한 기도' '한국과 서구의 부흥운동' 등의 제목으로 설교했다. 또한 김동일 목사(은혜의방주교회), 마크 버마이어 목사(크로스로드교회), 이원우 박사(칼빈대학교 교수), 데이비 크롬프 박사(칼빈대학교 교수), 박용규 박사(총신대학교 교수), 필 레인더스 목사(나스장로교회) 등이 워크샵 강사로 나섰다. 남성수 목사(OC한인교회)와 박형주 목사(미주영안교회)가 새벽기도회를 인도했다.

(박준호 기자)



제26회 HYM집회를 마치고 스태프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미션파서블' 제26회 남가주청년연합집회

강사 윤대혁 박형은 목사, 청년들에게 사명 심어줘

HYM(대표 더글러스김)이 주최한 제26회 남가주청년연합집회가 21일과 22일 양일간 인랜드교회(담임 박신철 목사)에서 열려 청년들에게 사명에 대한 도전을 심어주었다. 첫날 저녁 7시에 열린 집회에서 강사로 나선 윤대혁 목사(남가주사랑교회)는 '인생은 사명이다'(출 4:10-17)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외면한 채 가지지 못한 것에 초점을 두고 살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하며 그것은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사명을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비교의식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주는 마음이며 그 결과는 열등감과 교만이며 그러면 내게 주신 사명감을 붙잡지 못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둘째날 집회에서 박형은 목사(동양선교회 담임)는 출애굽기 3장을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위해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모세에게 하셨듯이 큰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르셨으며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광야는 죽음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보여주시기 위해 고난의 길에 가게 한다. 믿는 자를 외면한 채 가지지 못한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부르신다. 하나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집회는 선교사 자녀들로 구성된 크리스챤랜드 리빙켄바스와 허지에 자매, 최윤영 자매, 에스터 최자매가 오프닝 송 및 특송을 담당했다. 한편 27회 집회는 오는 9월 22일과 23일 토론토조은교회에서 열리게 된다.

(박준호 기자)



어린이전도협회에서 주관한 교사강습회에서 참가자들이 울동을 하고 있다

어린이전도협회 2012 교사컨퍼런스 성황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여병현 목사)는 2012 교사컨퍼런스를 21일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LA사랑교회에서 개최했다. 컨퍼런스에서 여병현 목사는 "아이들은 작은 것 하나에도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교사의 주목적은 학생 하나하나에게 복음이 전해져 구원받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윗 솔로몬 등 성경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지 않으면 그들은 단지 기록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

는 것이므로 어린아이들에게 주일학교와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재미를 주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하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을 돕는 교회와 교회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여름성경학교, 단기선교, 주일학교 교육에 대한 것과 영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 교사교육에 대해 강의가 한국어와 영어강의로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월드쉐어 사업설명회를 마치고 스태프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월드쉐어 이름 바꾸고 새 출발

국제기구 NGO단체인 월드쉐어 미주지사(이사장 양 운 목사)는 지난 12일 JJ그랜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월드쉐어가 진행해 온 사업과 앞으로의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월드쉐어 고문인 신 섭 장로와 미주법인 이사장인 양 운 목사, 그리고 김희기 팀장과 함께 여러 스태프들이 자리했

다. 지난 2004년 한국에서 월드아가페로 출발해 한국과 LA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온 바 있는 월드쉐어는 2008년 한국 외교통상부에 NGO로 공식 등록을 마치면서 월드아가페에서 월드쉐어로 법인명을 바꾸고 미주지사도 새롭게 설립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인명 변경 이유는 해외선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즉 아가페라는 이름이 주는 이미지가 기독교의 색채가 강해 회교권 등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곳에서 활동이 제한을 받기도 하고 월드아가페에 아가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타 기관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변경하게 됐다.

현재 월드쉐어의 대표적인 사역은 LA 다운타운에 자리한 홀리스 센터를 들 수 있다. 월드아가페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부터 진행해 온 홀리스센터는 단순하게 홀리스들에게 음식이나 쉴 곳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이들의 재활을 돕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포터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날 신섭 장로는 "LA 다운타운 내 신페드와 6가와 5가 사이에 위치한 월드쉐어 노숙자센터에서는 단순하게 먹을 것을 주는 구호 차원

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월드쉐어의 이 같은 활동에 대해 3천여 교회에 소식지 등을 이메일과 우편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의: (213)784-3227

(박준호 기자)

장애인의 달 기념 밀알 사랑나눔 전시회

장애인의 달(4월)과 세계 자폐 인식의 날 World Autism Awareness Day(4월 2일)을 맞아 커뮤니티와 사랑을 나누는 밀알 사랑 나눔 전시회가 18일부터 22일까지 코리타운 갤러리에서 개최됐다.

참가자는 구필화기인 뇌성마비 1급 장애인 박성미 씨의 작품 6점, 전신장애를 가지고 투병하고 있는 근무력증 배형기 씨가 5점을 비롯 LA, OC, 얼반인, LA동부, 토렌스, 아틀란타 밀알 사랑나눔 발달장애 청소년을 작품, 남가주사립작가협회 장애인 사진 등 전체 50여점의 그림과 사진이 전시됐다.

남가주밀알선교단 단장인 이영선 목사는 "아이들 작품을 시도했는데 쉽지 않았다. 앞으로 아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서 장애아동들의 작품들을 모아 전시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한·흑 갈등봉합 위한 합동만찬 기도회

울타리선교회

울타리선교회(대표 나주옥 목사)는 4.29폭동 20주년을 맞아 한·흑 갈등 봉합을 위한 합동 만찬 기도회를 'Prayer Dinner with music'이라는 주제로 21일 오후 4시 South Missionary Baptist Church(담임 Xavier L. Thompson 목사)에서 개최했다.

LA의 사우스웨스트 지역으로 사역이 모아졌다. 오늘 행사를 기점으로 본 선교회는 한인 커뮤니티와 흑인 커뮤니티가 화합할 수 있도록 집중된 노력을 하고자한다. 이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울타리선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나주옥 목사의 사회로 시작, 마이클 버틀러 집사가 대표기도를, 지윤자 사모 이병상 목사의 대금과 가야금 연주, 글로벨 메

시아 여성합창단(지휘 노형건, 민주신혜영)의 특별찬양 등이 있었다.

설교는 Xavier L. Thompson 목사가 했으며 합심기도는 피터김 목사가 '미국을 위한 기도', 제임스 맥어피 목사가 '한국을 위한 기도'를, 한영호 목사가 '사우스웨스트 지역을 위한 기도'를, 수전 스토퍼 박사가 '아이들 교육을 위한 기도'를 각각 인도했다.

이날 행사는 이병희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울타리선교회가 'Prayer Dinner with music'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만찬기도회에서 나주옥 목사가 사회를 보고 있다



장애인의 달 기념 밀알사랑나눔전시회가 LA한인타운 웨스트가에 위치한 갤러리아 2층에서 열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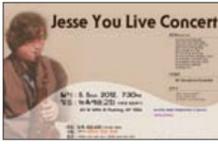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				기쁨과 영광교회 담임목사: 전희수 교육목사: 케머린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 오전 6:30(토)		낙원장로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9:30 금요일예배: 오후 8:45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1부: 오전 9:00 주일예배2부: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 금요일예배: 오후 9:00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9: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해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아)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아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9: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뉴욕순복음안나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2: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자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8:30 3부예배: 오전 10:15 4부예배: 오전 12:00 5부예배: 오후 1:30 6부예배: 오후 3:00 7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오후 8:00 (매주 1주, 3주)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강좌: 오후 12:30 금요일예배: 오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9:45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베다니교회 담임목사: 장동찬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25, 5:15(토)	어린이전도교회 담임목사: 김수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유니온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박태열 1부 기도회: 오전 9:00 2부 중보기도회: 오전 9:30 3부 예배: 오전 10:45 EM 강연회: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전 12: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5:00 영아예배: 오후 1:00	주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용익 주일1부예배: 오전 12:00 주일2부예배: 오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20 금요일예배: 오후 8:20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후 1:00 영아예배: 오후 2:00 영아예배: 오후 8:15 매일새벽예배: 오전 6:00	퀸즈웨스트교회 담임목사: 박규성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NCF영어: 오후 1:30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아일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남미지역	브라질 서교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모이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브라질 사모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양익상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선교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 2, 3부 스페어설교)	

동부교계 게시판

east

뉴욕리폼드신학교 졸업식
 뉴욕리폼드신학교(학장 이상열 목사) 제 회 졸업식이 5월 20일 오후 5시 본교에서 열린다.
 한편 본교는 2012 가을학기 신입생도 모집 중에 있다.
 ▲문의: (917)862-0523, (718)961-2171

제시유 라이브 콘서트
 크리스천 오픈 센터 건립을 위한 "제시유 라이브 콘서트"가 5월 5일(토) 오후 7시30분 뉴욕새순교회(담임 석중훈 목사)에서 열린다. 라이프 라인미션(대표 유태웅 목사)가 후원하는 이 콘서트에는 피아노 강동민, 드럼 제임스신, 베이스기타 립재형과 뉴욕색소폰동호회가 우정출연 한다.
 ▲문의: (646)258-4161



워싱턴성경신학대학 신학교 후원의 밤
 워싱턴성경신학대학 대학원(박사원) 신학교 후원의 밤이 5월 5일(토) 뉴저지 오후 8시 베데스 기도원에서 열린다. 이날 서울백향목 선교단과 월드밀양선교화장단이 함께 공연한다. 6일 오후 6시에는 뉴욕분교(만국교회)에서 열린다.
 ▲문의: (201)919-7089, 646-431-1875

'젊은 주기철 목사' 김다니엘 선교사 초청집회

뉴욕교협, 탈북자 복송반대 기도회/시위 및 서명촉구

영어권에서 자랐지만 '젊은 주기철 목사'라는 이름이 붙여진 다니엘 김 선교사가 동부지역 대각성 순회 집회를 가졌다. 메릴랜드 지역에서는 'Awakening(영적 대각성)'을 주제로 25일 볼티모어 갈보리장로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했다. 어린 시절 10년을 일본에서 그리고 10년을 미국에서 자란 김 선교사는 미국 육군사관학교와 트리니티신학교를 졸업했다. 해외선교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남침례교단에서 파송을 받고 중국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사진: 평화나눔공동체)

한편 지난 19일에는 뉴저지 럿거스대학 집회, 20일 뉴저지 가스펠 웰로심교회, 22일 보스턴캠브리지한인교회, 27-29일 뉴저지 사랑과진리교회에서 각각 집회를 인도

“사중복음을 온누리에” 영성과 리더십

미주성결교회 33회 총회/2012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2개 교단 총회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뉴저지에서 각각 열렸다. 미주성결교회 33회 총회는 “사중복음을 온누리에”(살전5:23)라는 주제로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뉴욕성결교회(담임 장석진 목사)와 교회인근 뉴저지 레디슨 호텔에서 열렸다.

미주성결교회는 17일과 18일 이틀간 진행된 정기총회 회무를 통해 신임총회장에 전직 부총회장인 김광렬 목사(산호세중앙성결교회 담임)를 추대했다. 김광렬 신임 총회장은 서울신대

신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육군 군목 대위로 전역해 미주성결교단 부서기, 재단이사장, 국내선교위원장을 거쳤고 현재 산호세중앙성결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김광렬 목사는 “부족하지만 성결교단의 가치와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교역자 연금 문제와 최저생활비 지원, 교단 정체성 확립과 강력한 성결운동, 300교회 운동, 2세를 위한 교재 발간 등에 힘쓰고 싶다”고 밝혔다.

미주성결교회에는 217개 교회 1만7천여 명의 성도가 속해 있다.

2012연합감리교회(KUMC) 한인총회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뉴저지 아플라연합감리교회(담임 안명훈 목사)와 인근 힐튼 우드클리프레이크 호텔에서 개최된 신임총회장에 안명훈 목사를 선출했다. '영성과 리더십'을 주제로 열

린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변화와 격동을 맞고 있는 UMC내 한인교회들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별히 일천교회 캠페인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말 설립된 목회자학교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1천교회 운동은 UMC 내에 한인교회 숫자를 2020년까지 1천교회로 늘리고 10만 명의 미국내 한인 감리교인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1천교회운동은 2008년-2009년 비전공유기를 거쳐 2009년-2012년 비전실행기 단계에 와 있다. 이 기간 사이 건강한 소그룹 리더와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소그룹 사역과 영성 훈련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주요 과제다.

안명훈 신임총회장은 당선소감에서 “UMC 한인총회 내 훌륭한 기관들이 많은데 UMC 한인총회의 부흥과 사역의 발전을 위해 더욱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맴을 만들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리: 유원정 기자)



미주성결교회 새 총회장 김광렬 목사(왼쪽)와 직전 총회장 이의철 목사



미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가 열리고 있다

장애아동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이노비, 코코 장애아동과 함께 무료음악회

코코장애아동서비스센터(대표 전선덕 권사) 장애 아동들을 위한 이노비의 '찾아가는 음악회'가 아틀란타재단 후원으로 지난 14일, 40여 명의 장애 아동들과 자원 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플라밍의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공연은 평소 공연장을 직접 찾기 어려운 장애 아동들에게 신나는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마련됐다.

이번 공연은 한국의 메이저 뮤지컬 '명성황후' 음악 감독보를 역임하고 현재 뉴욕대학(NYU) 뮤지컬 작곡(Tisch School)과 대학원 과정에 있는 서혜선이 음악 감독을 맡았으며,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싱어들과 연주자들이 참여해 뮤지컬 맘마

미아의 'I have a dream', 알라딘의 'A whole new world', 라이언 킹의 'Hakuna Matata', 'I just can't wait to be king' 등을 연주하며 장애 아동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전선덕 권사는 “단 5분도 공연장이나 다른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에조차 참여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찾아와 멋진 음악을 들려주니 감사할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2006년부터 문화적으로 소외된 장애 아동이나 임원 환자 등을 찾아가 무료로 음악회를 열어주고 있는 이노비는 지난 21일에는 뉴욕밀양(대표 김자송) 주최 '함께 걸음 한마당'에서도 연주했다.

(기사제공 이노비)



공연을 마치고 이노비와 코코 장애아동, 간사들이 기념촬영 했다.



'함께 걸음 한마당' 행사에서 비영리단체 이노비가 장애 아동들을 위한 음악 공연을 열어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뉴욕지역 부활절연합예배 헌금 늘고 참석자 감소

뉴욕교협(회장 양승호 목사)은 지난 13일, 부활절 연합예배 결산을 하고 결과를 보고했다. 26개 지역에서 열렸던 2012년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에는 총 3,401명이 참여했으며 헌금은 21,017달러로, 이는 지난해에 비해 헌금액은 늘었으나 참석자는 감소했다.

양승호 회장은 “부활절 연합예배 헌금이 전보다 늘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며 “다만 과거와

같이 다 함께 예배드리던 전통이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에 가장 많이 참여한 지역은 프라미스교회에서 드린 플라밍6지역으로 총 300명이 참석, 1889달러를 헌금했다. 그 다음은 빛과생명교회에서 열린 웨체스터 지역(280명)이며 그 외 지역은 100-2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참석한 것으로 보고됐다.

(정리: 유원정 기자)

KWMC 후원음악회

뉴욕 로리엇 오케스트라 공연

한인세계선교대회(KWMC)를 후원하는 음악회가 지난 22일 저녁 뉴욕신광교회(담임 한재홍 목사)에서 뉴욕의 한인 청소년들로 구성된 뉴욕 로리엇 오케스트라(NY Laureate Orchestra, 지휘자 김경수) 출연으로 열렸다. 음악회에는 뉴욕신광교회와 지구촌선교교회

(담임 고석희 목사) 합창단원들이 함께했으며 성악가 박미음, 박오한, 김인식 목사, 이주현 사모가 출연했다.

한편 한인세계선교대회는 7월 23일부터 5일간 시카고 휘튼대학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KWMC 후원음악회에서 뉴욕 로리엇 오케스트라가 공연하고 있다

www.sbm.or.kr

크리스천이 이대로 살아가는 안됩니다. SBM이 처방을 제시합니다.

SBM총재 왕 의 영 목사

SBM의 3대 목표

1. 말씀의 신앙화 From Scripture to Faith
2. 신앙의 생활화 From Faith to Innovated Life
3. 생활의 문화화 From Innovated Life to Cultural Impact

S-B-M 기독교 생활개혁신운동본부 THE HEADQUARTERS OF SON BAL MOVEMENT

서울(02)564-3191, Fax. (02)564-6933 E-mail: sbm01@hot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아이폰 앱 Application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를 지향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아이폰용 앱을 출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미주크리스천신문에서 제공하는 전체뉴스와 칼럼을 구독하실 수 있으며 미주내 등록된 교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신문보내기 후원을 통해 귀한 선교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기능 및 구성

- 전체뉴스
- 칼럼
- 교회검색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어플을 이용해서 어플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24시간 영영

뉴욕고양 스타벅스

New York Kom Tang

24시간 오픈

교포사회의 등대 주일은 쉽니다

맨하탄 : 32 W, 32nd St., New York, NY 10001 Tel. 212-947-8482
 뉴저지 : 329 Bergen Blvd Palisade Park NJ 07650 Tel 201-346-0201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Yoo Travel!

유 여행사

항공권 전문 도매 대리점

아시아나 · 대한항공
 서울행 초 특가 요금 판매

Tel. 718. 463. 9500 / Fax. 718.463.7231
 136-85 Roosevelt Ave., 2 Floor Flushing, NY 11354

NY Christian Guest House

뉴욕선교사의집

www.nycgh.org

5대양 6대주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편안한 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sunnyusany@yahoo.com
 35-74 162 St, Flushing NY 11358

347.732.9459

남가주 각 신학대 2012년 학위수여식 일제히 5월5일 APU/콩코디아대 시작 6월23일 베데스다대까지

학 교	일 시	문 의
아주사피사대학교(APU 총장 존 윌레스 박사)	5월5일(토)	(626)969-3434, (866)491-9083
콩코디아대학교(총장 커트 크루거 박사)	5월5일(토)	(800)229-1200, (949)854-8002
미주개혁대학교(총장 박요한 박사)	5월12일(토)	(213)736-6500
호프국제대학교(HIU 총장 존 데리 박사)	5월12일(토)	(714)879-3901
메스터신학교(총장 존 맥아더 박사)	5월13일(주일)	(800)225-5261
클레어몬트신학교(총장 제리 캠벨 박사)	5월15일(화)	(909)447-2500
국제개혁대학교(총장 황은영 박사)	5월19일(토)	(213)381-0081
복음대학교(총장 신현국 박사)	5월19일(토)	(714)527-0691, 0692
갈보리채를 성경대학교(총장 척스미스 박사)	5월24일(목)	(951)696-5944
바이올라대학교(총장 베리 코리 박사)	5월26일(토)	(562)903-6000
웨스트민스터신학교(총장 로버트 잠프리 박사)	5월26일(토)	(888)480-8474, (760)480-8474
미주성결대학교(총장 류종길 박사)	6월2일(토)	(323)643-0301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6월2일(토)	(562)926-1023, 4691
세퍼드대학교(총장 이성연 박사)	6월2일(토)	(213)481-1313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동선 박사)	6월2일(토)	(213)381-1000
캘리포니아신학교(총장 심태섭 박사)	6월2일(토)	(213)381-7007, (818)307-4655
그레임스미션대학교(총장 김광선 박사)	6월4일(월)	(714)525-0088
국제신학교(ITS 총장 벨 톱스 박사)	6월9일(토)	(626)448-0023
풀러신학교(총장 리처드 마우 박사)	6월9일(토)	(626)584-5651, 584-5574
킹스대학교(총장 잭 헤이로드 박사)	6월10일(주일)	(818)779-8040, (888)779-8040
라이프대학교(총장 레슬리 도날드 박사)	6월22일(금)	(310)756-0001, 323-1411
베데스다대학교(총장 진유철 박사)	6월23일(토)	(714)517-1945

남가주의 각 신학교 및 신학교를 보유한 기독교대학교들의 2012년

도 불학기 학위수여식이 아주사피사대학교(총장 존 윌레스 박사)와 콩코디아대학교(총장 커트 크루거 박사)를 시작으로 6월까지 열린다. 다음은 2012년도 남가주 각 신학교 및 기독교대학교들의 불학기 학위수여식 일정이다.



4.29 LA폭동 20주년 기념 종교포럼이 오는 10월5일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린다

4.29 LA폭동 20주년 기념 종교포럼 남가주교협, 불교 원불교 대표 참여·설문조사도 진행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변영익 목사)는 지난 92년 4월 29일 발생한 LA폭동 20주년을 기념하는 종교포럼을 오는 10월 5일 JJ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한다.

인 종매스님이 원불교계에서는 양윤성 서구교구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그날의 아픔만 기억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아픔을 치료할 것인지에 대하여 찾아가는 모임으로 흑인들의 아픔을 생각하는 모임이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민족 간의 소통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5월부터 7월까지 LA지역의 최소 천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에 들어간다. 설문내용은 4.29에 대한 정의(폭동인가? 시민소요인가?), 한인사회가 피해자로서 합당한 조치를 받았나에 대하여, 4.29 폭동에 대한 종교인들과 무종교인들의 비교분석 등이 포함돼 있다. 설문 조사를 통해 모아진 자료를 근거로 4.29에 대한 역사(종교)적 평가와 인종(종교)간의 갈등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발표하게 된다. 발표 자료는 기독교측은 김기대 목사의 1인, 불교측에서는 종매 스님, 원불교측에서는 조태형 교수가 나서게 된다. (박준호 기자)

UMC 20th National Shalom Summit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4.29폭동은 단지 기독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범 교포적이고 국가적인 문제인 만큼 천주교와 불교 그리고 원불교까지 함께 하며 같은 이민자인 라티노와 흑인들까지 참여하는 행사로 열게 된다. 포럼을 통해 4.29폭동의 원인과 치료방법을 맞춰 보며 4.29폭동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 기회로 삼게 된다.

종교포럼을 위해 19일 포럼장소인 JJ그랜드호텔에서 남가주교협 변영익 목사, 평화교회 김기대 목사, 남가주교협 종교와다문화협력 특별위원장 양현승 목사 등이 기독교계 대표로 참석했으며 불교계는 로올라 메리마운트 대학 교수로 재직 중



41년을 맞이한 남가주교회음악협회 임원들이 2012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기념촬영했다

"찬양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연중행사 계획발표

올해로 41주년을 맞는 남가주교회음악협회(회장 김미선 교수)는 지난 12일 타운 히너버니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2년 본 협회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김미선 회장, 조성한 수석부회장, 엄인용 부회장 겸 회계, 임경혜 기악분과위원장, 랜디 김 작곡분과위원장, 이호준 작곡분과위원장 등 17대 임원진은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는 군림하는 협회가 아닌 연합하고 함께 참여해 교회들과 찬양 사역자들에게 찬양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도와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총회 이후 사업구상에 들어갔던 교회음악협회는 미국합창지휘자협회(ACDA) 회장인 조사 이브(사진) USC 지휘과 교수를 초청, 오는 28일 오후 5시 월서연합감리교회 찬양대실에서 갖는 '지휘 세미나'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음악가 콘서트 '△9월 9일 오후 6시 나성서부교회, '창작성가 발표회' △10월13일 오후 5시 세리토스장로교회, 'CCM 페스티벌' △11월 4일 오후 6시30분(장소 미정), '남가주 성가 대항쟁제' ▲문의: 김미선 회장 (213)820-3873 genesismusic2000@yahoo.com (박준호 기자)

은혜한인교회 설립 제30주년 기념 특별 공연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린 교회설립 제30주년을 기념 'Musical Eternal Life' 특별 공연이 연인원 7천여 명이 관람하는 큰 성공을 이루며 장엄한 막을 내렸다. 이번 공연은 이 교회의 창조문화선교단(이덕용 국장)의 주관으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에서 열렸다. 감독 및 총연출은 김현철 안수집사(서울예술대학 방송연예학과 졸업)가 맡아 진행을 했다.



은혜한인교회 창립 제30주년 기념 특별 공연 뮤지컬 Eternal Life가 성황리에 열렸다

본 공연은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이벤트'를 역사적인 고증이 잘 표현했다. 또한 대형 무대 배경과 음악, 의상과 무용, 대사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전 배역진들은 수준 높은 연기를 보여주었다. 특히 군중들을 헤치고 실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본 관중들은 환호와 함께 청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흐느끼는 소리로 들렸다.

둘째 날 공연에서 한기홍 목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복음과 사랑, 그리고 고난 후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진정한 삶의 보람이요 또한 축복인 것인데 이번 공연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LA언약교회 장로장립 및 권사취임예배

LA언약교회(담임 고귀남 목사)는 장로장립 및 권사취임예배를 29일(주) 오후2시에 갖는다. 이번 예배는 이우진 집사가 장로장립을 문선자, 박성숙, 유연희 집사가 권사취임을 한다. ▲문의: (213)820-0003

남가주민음의교회 설립예배

남가주민음의교회(담임 김원종 목사)는 교회설립예배를 29일(주) 오후 4시30분에 개최한다. ▲문의: (213)383-0191

사랑의빛선교회 설립19주년 임직예배

사랑의빛선교회(담임 최혁 목사)는 설립 19주년을 맞아 임직 감사예배를 29일(주) 오후 4시에 갖는다. ▲문의: (626)744-9191

제4차 북가주 패밀리 컨퍼런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제 4차 북가주 패밀리 컨퍼런스를 5월 4일과 5일 양일간 뉴비전교회(담임 이진수 목사)에서 북가주 가정사역자 모임(회장: 매튜리 목사)이 주최하고 크리스천 패밀리 리소스 주관으로 개최된다. 'Back to Basics'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시애틀행재교회 담임 권준 목사와 두란노아버지 학교 국제본부장 김성목 장로를 주 강사로 선다. 회비 일인당 30달러. ▲문의: www.ifamilyway.com/408-881-0663

영적 성숙과 회복을 위한 치유 부흥집회

포틀랜드성결교회(담임 임형수 목사)는 영적 성숙과 회복을 위한 치유 부흥집회를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사61:1-3)이란 주제로 27일(금)부터 28일(토)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황의정 목사(LA 돌로스선교회 담임) ▲문의: (503)999-1970



WMU 제11회 학생뮤직 페스티벌에서 전출연자들이 함께 앵콜곡을 부르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 제11회 학생뮤직 페스티벌

월드미션대학교(WMU 총장 임동선 박사)는 제11회 학생뮤직페스티벌을 14일 저녁 7시30분 함길교회(담임 노진준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본교 부총장 임성진 박사의 기도로 열린 이번 페스티벌은 클래식과 컨템퍼러리, 그리고 크로스오버 등 다양한 장르로 진행됐으며 본교 재학생은 물론 WMU 동문들이 참가해 페스티벌을 더욱 더 빛냈다.

이날 연주회는 'Carman', 'Gianni Schicchi', 'Tosca' 등 영화음악에 사용되었던 오페라 아리아를 비롯 'Moon River', 'All the Things You are', 'Beauty and the Beast', 'A Whole New World' 등 팝음악, 그리고 'Hotblooded' 등 락 음악 등이 연주됐으며 WMU 밴드와 오케스트라가 협연으로 영화 미션임파서블의 주제음악인 '미션임파서블'과 아리랑을 엮어서 편곡한 곡을 선사했다. 또한 본교 재학생들이 80년대 중후반 학창시절 이야기를 다룬 '씨니'의 주제음악인 '씨니'에 맞춰 흥겨운 율동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큰 환호를 받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SAINT MISSION UNIVERSITY

목사 · 선교사 후보생 장학생 모집

www.saintmu.us

3407 W 6th St, # 705 Los Angeles CA 90020
213-251-0191, 213-514-0037 saintmu10@gmail.com

2012 목회자의 날 기념

목회자 부부 영적 각성 세미나

성령이 임하시는 절정의 시간!

목회자의 영성이 깨어야 성도들이 살고 한국교회의 희망이 있습니다
해마다 4000여명이 넘게 참석하는 한국 최대 목회자 부부 세미나!

다이나믹한 기도의 능력과 불붙는 영성으로 한국교회를 깨우는 영적 대각성운동의 지도자 윤석전목사!
한국 교회에 복음적인 설교와 영적 부딪듯같은 목회정보를 통해 영성회복운동을 이끌어가는 김향안 목사!

잠든 이 시대와 한국교회를 향한 두 목회자의 처절한 외침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거운 소명감으로 불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전혀 새로운 목회의 세계가 열립니다!!

강사: 윤석전목사, 소강석목사, 김향안목사

일시: 2012. 6. 4(월)~ 6. 7(목)

장소: 수원흰돌산수양관

윤석전 목사

소강석 목사

김향안 목사

수원흰돌산수양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224

▶ 찾아 오시는 길 : 수원역에서 32번, 33번 발안행 버스(당하리 하차)
*차량운행 / 흰돌산수양관 입구(당하리) ⇄ 수양관
(월요일 오전 10시~ 오후 6시)

성회등록방법 | 등·록·비·무·료

1. 인터넷등록 | 한국교회정보센터 홈페이지(www.kcdc.net), 혹은 연세중앙교회 홈페이지(www.yonsej.or.kr)를 통해 등록
2. 인터넷 등록이 불가능할 경우 | 전화 1566-3004를 통하여 등록
* 준비물 | 성경, 찬송가, 세면도구, 침구

소용차3대

최신형 노트북

복사기 외 다수

☐ 성회안내 및 등록문의 : 한국교회정보센터 Tel. 1566-3004 / 연세중앙교회 선교부 Tel. 02-2680-0001 ☐ www.kcdc.net ☐ 수원흰돌산수양관 Tel. 031-227-3111

WCC 부산총회 개최 반대운동 벌여나가기로 한기총 WCC 반대 대책위원회 5차 전국지도자대회

[미선라이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세계 교회협의회(WCC) 반대 대책위원회는 16일 서울 사당동 총신대에서 제 23회 5차 전국 지도자 대회를 열고 2013년 WCC 제10차 부산총회 개최 반대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한기총 WCC 반대 대책위원회는 1부 예배와 2부 회의가 끝난 뒤 성명을 통해 "WCC는 기독교복음 전파에 역행하고 교회 건설 사명을 방해할 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절대성을 무효화시키는 반성경적, 비기독교적 단체이기 때문에 한국개혁교단은 2013년 WCC 부산 총회 개최를 반대한다"며 10개항의 이유를 제시했다.

대책위원회는 회의에서 WCC 반대 문구를 담은 플랜카드를 전국교

회에 내걸고 WCC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책자와 팸플릿, 5분 분량의 동영상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또 WCC 대책 학술세미나와 심포지엄 등을 연 뒤 WCC 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WCC 반대대책위원회 후원 ARS(060-700-0190, 1통화 1만원)을 개설하기로 했다.

500여명의 참석자들은 WCC는 종교다원주의와 종교대화주의, 종교 혼합주의, 사회구원지상주의, 용공주의, 개종전도금지주의, 로마가톨릭주의, 가시적교회일치주의, 신앙 고백형식주의, 성경불신주의를 주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0개항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참석자들은 또 정해송 총대섭 박중선 감동목사의 인도로 WCC 총

회 개최 반대 투쟁의 성공, 한기총 소속 70개 교단, 2014년 세계복음주의 연맹(WEA) 성공 개최, 세계 복음화와 선교사들을 위해 합심 기도하겠다고 했다. 홍 대표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교회가 종교다원주의와 동성애를 인정하는 WCC를 용납한다면 교회 성장이 둔화된 '제2의 유럽'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길자연 직전 대표회장은 "WCC는 말씀 없는 허구에 지나지 않고 자칫 한국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 한국교회는 오직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엄신형 예상 개혁총연 전 총회장은 "이래도 구원받고 저래도 구원받는다"는 종교다원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기독교 구원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광명성 3호 발사 교계 비난성명

기독교 단체들은 13일 북한이 핵미사일 '광명성 3호' 발사를 강행한 것과 관련, 비난하는 성명과 논평을 잇달아 발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이날 "북한은 전 인류를 향한 테러를 중단하고 진정한 광명으로 나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한기총은 "북한 정부는 더 이상 전 인류를 향한 도발과 테러를 중단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인권 향상을 위해 힘쓰라"고 촉구했다. 또 "자유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사회를 개방하며 진정한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바로 서라. 무엇보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광명'으로 나오라"고 호소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도 이날 "북한이 유엔 제재 조치를 무시함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얻는 악수를 둔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비용은 약 8억 5000만 달러(약

9680억원)로 북한 주민 1900만명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식량 구입비이며 식량 부족분의 6년치를 채울 수 있는 비용"이라며 "주민들의 기아에

허덕이는 피폐한 삶을 뒤로 한 채 오직 1인 독재 통치자의 체제유지를 위한 남비는 심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목사부총회장 선거 4명 경합 예장합동, 정평수 황원택 이태선 안명환 목사

예장 합동(총회장 이기창 목사) 목사부총회장 선거에 4명의 목회자가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마무리된 전국 138개 정기노회 결과 정평수(영인 만남의교회) 황원택(서울 신장교회) 이태선(정평수 승리교회) 안명환(수원 명성교회) 목사가 노회에서 목사부총회장 후보로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평수 목사는 정치부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총신대 운영이사를 맡고 있다. 황원택 목사는 정치부장과 교육부장, 총신대 운영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태선

목사는 총회 부회록 서기와 회록서기를 역임했으며, 총회유지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안명환 목사는 정치부장과 총회세계선교회 부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총신대 재단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임후보는 6월 초까지, 8750만원의 총회발전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들 후보는 노회에서 추천받은 날부터 설교, 기도, 축도 등의 순서를 맡을 수 없으며, 임후보 후 대구성명교회에서 열리는 97회 총회에서 예비선거 선거로 당선자를 가린다.

"한국교회 부흥·연합, 다시 환경직 목사다" 환경직 목사 소천 12주년 예배

[미선라이프] 19일은 한국 교회사의 거목으로 추앙받는 환경직(1902-2000·사진) 영락교회 목사가 소천한 지 1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영락교회는 지난 18일 한 목사 탄생 110주년 및 소천 12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전도와 교육, 봉사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청령·고결한 목회자의 모델 보여준 한 목사의 삶을 기념했다. 2012년 한국교회에 다시 '환경직'이 요청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복음주의 운동, 교회부흥 비전 꿈꾸라=한 목사는 한국 복음주의 운동사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다. 한국교회에서 복음주의 운동이 무대에 오른 것은 1973년 빌리 그레이엄의 서울 전도집회 이후부터다. 이때를 기점으로 성경공부와 전도, 기도의 열기가 무르익었으며, 해외 선교사 파송이 줄을 이었다.

한 목사는 73년 대회는 물론 엑스플로 74대회를 진두지휘하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초대 이사장을 맡는 등 복음주의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그는 1945년 이복실향민과 함께 배다니교회(영락교회 전신)를 세우고 대형교회의 모델과 가능성을 제시했다. 복음적인 목회철학과 비전, 설교는 조용기 관석희 김삼환 목사 등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김선도 광림교회 원로목사는 "한국교회는 모세처럼 교회를 이끌어 부흥시킨 한 목사의 정신을 어떻게 이어받을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해야 한다"면서 "영락교회가 한국교회의 씨앗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선한 목자가 되어 풍성한 생명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전도 교육 봉사, 연합운동 균형 갖추라=한 목사는 '교회'가 서면 열심히 전도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 특히 교회가 서는 곳에 교육기관이 설립되어야 하며, 가난하고 험벗은 이웃을 돌보는 사회사업기관이 있어야 한다('영락교회 35년사', 1983)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의 나라사랑 정신은 오산학교 시절 이승훈 조만식 선생의 가르침에서 기인했다. 그것은 신사참배 거부운동과 기독교사회민주당 창당(1945년) 등으로 나타났다. 고아들을 위한 보린원을 비롯 모자원, 경로원, 농아인교회 등을 세우고 한국전쟁 당시 기독교 구국회를 조직해 신앙집회를 개최했다.

교육자로서 영락중·고교, 영락여자신학교 등을 세웠으며, 기독교선교회(원 월드비전)를 창설해 전쟁과 재난, 기아에 시달리는 이들을 보듬었다. 예상 통합 총회장(1955년)과 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사업회 총재(1982년)를 맡았으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발족(1989년)시키고 사랑의살나누기운동(1990년)을 전개했다. 이런 공로로 종교계의 노벨상으로도 불리는 템플턴상(1992년)을 수상한다.

립인식 환경직목사기념사업회 이사장(노량진교회 원로목사)은 "한 목사님은 위기극복의 강력한 원동력이자 연합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시면서 한국교회와 사회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셨다"면서 "한 목사의 정신을 교회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로교 100주년, 300대 장로교회 선정 한장총 한국장로교 100년 역사 다큐제작시사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대표회장 윤희구 목사)는 12일 서울 용산3동 육군회관에서 100여명의 회원 교단 교단장과 총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장총 사단법인' 취득 감사예배 및 한국장로교 100년 역사 다큐 제작 시사회'를 열었다. 윤희구 대표회장은 이날 개회 인사를 통해 "회원 교단간 친목을 도모하고 한국장로교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제반 사역에 힘을 모으

자는 것이 한 장총의 가장 큰 목적"이라며 "개혁주의 전통의 장로교 신앙을 바로 전수하는 교회를 돕고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마음과 뜻을 모으기 위해 사단법인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양병희 전 대표회장은 '종교개혁의 5대 솔라(sola)'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장로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의 근본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오직 성경·오직 그리스도·오직 믿음·오직 은혜·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5대 솔라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81년 2월 창립된 한장총은 27개 장로 교단 3만 5000여 교회를 포함하는 연합기관으로, 예상 합동 및 통합은 물론 진보적인 기성과 보수적인 예상 교신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 교회연합과 일치운동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한장총은 올해 한국장로교총회 설립100주년 기념사업을 다채롭게 전개하고 있다. 다음 달 11일 서울 양재동 뿔뿔관에서 신학대학교 찬양경연대회를 연다. 오는 9월 1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한국장로교 총회설립 100주년기념 연합대회'를 열고 장로교 전통예배와 성찬식, 이웃나눔 실천행사를 열 예정이다. 한장총은 대회에서 한국장로교회 300대 교회를 선정, 발표한다. 한 장총은 앞서 4-10월 서울 인사동 등에서 '한국장로교회와 민족·감사·성장·비전'이란 주제로 사진전을 열고 역사사진집을 발간했다. 또 7월 '한국장로교회와 한국문화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어 기념논문집도 발간했다.

"말의 진화계열 교과서내용 틀렸다" 과학자 187명 교과부에 청원

[미선라이프] 몸집이 커지고 발가락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말의 진화 계열'을 수록한 국내 교과서는 잘못됐으며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제출됐다.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교진추·회장 이광원)는 지난 달 26일 2011년도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 개정에 대한 청원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에게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말의 진화계열은 상상의 산물이다'는 제목의 이 청원서에는 전·현직 대학교수(대표 전창진) 57명, 중등과학교사(대표 정미숙) 58명, 초등교사(대표 최영일) 72명 등 과학 관련 교육자 187명이 의견을 모아 청원했다. 현행 교과서에 수록된 진화론에 대한 개정이 절실할 필요함을 절감하는 대목이다.

청원 내용은 △몸집이 커지고 발가락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화했

다는 말의 화석계열은 인위적으로 배열한 것이다. △말의 점진 진화를 보여주는 중간 화석은 발견되지 않았다. △최근 학계에선 말의 화석계열을 '상상의 산물'이라고 비판한다. △발가락의 수나 신장 크기의 변화는 진화의 증거라고 할 수 없다 △말의 화석으로 추정된다는 하이라코테리움(에오히푸스)는 그 형태와 생활습관이 오늘날 말과는 매우 다르다. △말의 흔적 기관은 대부분 고위안 기능을 가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등이다.

과학자들은 '말의 진화 계열'의 문제점으로 △말 화석의 완벽한 계열이 아래에서 위층까지 적절히 진화론적인 질서로 암석층에서 정렬된 채로 발견되는 곳은 어느 곳에도 없다. △에오히푸스는 말이 아니라, 비위너구리(hyrax)와 흡사하다. △박물문 전시품과 교과서의 진화론 계통도는 단지 재구현한 말들의 일

부분과 유리한 부분만을 예로 들었다. 말의 크기의 범위는 오늘날 아메리카의 소형 말로부터 북 영국의 큰말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존하며 이는 말 화석 크기의 발견 범위와 동일하다. △발가락이 많은 동물로부터 한 개의 발가락을 지닌 동물로 배열하는 것은 이론에 불과한 순서로, 많은 반론을 지닌 부자연스러운 배열이다.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변하는 말의 크기에 있어서 과도 기적인 화석이 없이 많은 간격이 나타난다 등을 지적하고 있다.

교진추는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도 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보냈다. 또 6월 16일 오후1시 서울역 강의실에서 말의 진화계열을 포함한 '진화론, 교과서, 세계관'을 주제로 포럼을 연다.

교진추는 지구 최초의 새로 알려진 '시조새는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종이 아니다'는 청원서를 지난 해 12월 제출해 금성 등 7개 교과서 출판사에게 전면 삭제 및 수정, 검토 답변을 1월 초 얻어냈다.

교진추는 '화학진화설은 생명의

기원과 관련이 없다' '인류의 진화' '편지 새가 섬식습성에 따라 부리모양이 달라지는 것' '후추나무가 밝은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한 것' 등 진화론의 잘못에 대해서도 청원할 계획이다.

오늘날 생물의 진화과정을 보여주는 화석 자료로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이 시조새와 말의 진화 계열이다. 시조새는 공룡이 조류로 이행한 '중간 종의 증거'로 '말의 진화 계열'은 너구리 크기의 동물이 지금과 같은 크기의 현대말로 성장한 과정을 보여주는 '점진 진화의 증거'로 각각 제시되고 있다.

국내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는 "말의 진화에서는 발가락 수의 감소와 몸의 크기 변화, 이가 합쳐지면서 복잡해지는 것, 대뇌의 대형화라는 일관된 방향성을 찾아 볼 수 있다"(상상아카데미 pp163-164)고 수록돼 있다. 그러나 최근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과 전혀 다른 화석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말의 진화 계열이 진화론의 증거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기게 선교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 문예창작학과

Toll Free 1-800-281-2123
E-mail: reformeduniversity@yahoo.com
TEL (213)736-6500 FAX (213)735-6604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차이가 명품 웨딩을 만듭니다
The(원) 결혼식, 돌잔치, 세미나, 각종행사

아로 마넨타5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l. L.A., CA 90010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국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자동형 복사 & 프린터
초간편 복사기
전도용 물리수 판매

TOLL FREE: 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미주 및 해외인인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언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보내실곳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LA: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 mail: LA@chpress.net

신규 □ 변경 □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1 교회(기관) 이름	한글: _____ 영문: _____
2 교회(기관) 주소	_____
3 교회전화 & 팩스	Tel.() _____ Fax() _____
4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_____ 영문: _____
5 사택주소	_____
6 시택전화 & 팩스	Tel.() _____ Fax() _____
7 E-mail Add.	@ _____
8 Web Add.	http:// _____
9 소속교단(정확하게)	_____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시시오 4 번은 해당사항에 O 표시를 하세요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 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fif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세계를 뚫어주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이슬람 뉴스

1. 이집트 소식

대통령 선거를 앞 둔 이집트는 좀 시끄럽다. 무슬림형제단들이 의회를 장악하자 이슬람 원리를 너무 강조하여 자유주의자와 세속주의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뉴스가 지난 주 타임지와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동시에 보도하고 있다. 의회의 세속주의 자문의원들이 사표를 냈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슬림 형제단도 대통령 후보를 내세웠고 전 독재자 무바라크 밑에서 부통령과 정보부 장관을 한 오마르 술레이만이 대통령에 출마했는데, 지지자들이 많다고 뉴욕타임지(4월9일자)가 보도했다. 일부 시민들은 독재지만 안정된 과거가 좋았다고 하면서 그를 지지하는데, 특히 그는 군부가 그를 지지할 것으로 보며, 그는 친미파이며 이스라엘에 대하여도 강경 노선자가 아니라고 한다. 대통령 후보자가 많아서 혼전이며 이집트 정치의 앞날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튀니지 소식

자스민 혁명으로 유명한 튀니지가 역시 혁명 이후 상황은 낙관할 수 없다. 불안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 나라 역시 선거 이후 무슬림 형제단이 정치 주도권을 장악했는데, 형제단 정당인 Ennahda는 세속주의자들과 강경 보수 이슬람 정당들로부터 거센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세속주의자들은 경제 불안과 강경 노선을 걷는 무슬림 형제단에 불만, 데모를 하자 경찰이 진압했는데 여기에 대해 시민들은, "공포 안돼, '테러 안 돼,' '이 거리는 시민의 것이야'를 외치면서 데모했다" 한다. 세속주의적 노동자 그룹들은 무슬림 형제단의 정치는 보수적 종교적 가치를 너무 내세운다고 데모를 하고, 반면 강경 보수와 이슬람 정당한 살라피스트파는 너무 자유를 준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무슬림 형제단인 Ennahda 정당은 술을 불법화하지 않고 여자들에게 베일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살라피스트파들은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이다.

3. 말리에서 이슬람 반군과 세속주의 반군의 대결

지난 달 아프리카의 작은 이슬람 국가 말리에서 쿠데타가 발생, 투

마니 투레 대통령이 물러난 후 은 신처에서 측근을 통하여 대통령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를 축출한 세력은 이슬람 반군과 북부 투아레그 부족의 반군들이다. 그런데 이 두 반군세력은 대통령을 축출한 이후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 이슬람 원리주의 집단인 반군세력들은 수도를 장악한 후 "우리는 알라의 이름으로 이슬람을 실천하려 왔다"고 외쳤다. 그러나 세속주의 반군단체인 아자드 해방민족운동은 세속적 독립국가를 선포했다. 현재로서는 세속적 반군 세력이 힘이 약한 것으로 보도한다.

무차별 총기난사 후 무슬림 이맘의 출입을 금지한 프랑스



3월 19일 유대인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랍비 1명과 어린이 3명을 살해했으며 몽토방과 툴루즈에서 군인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장 이슬람교도가 사망한 이후, 프랑스 대통령의 안락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3월 26일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4월 말에 개최 예정인 이슬람 컨퍼런스를 위해 입국하는 Qaradawi를 비롯 일부 이맘들의 입국을 불허하였다. 재선 캠페인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르코지는 이슬람 관련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과 테러와 관련된 살상 후 해의에 나가는 사람들도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전에 무슬림 형제단의 멤버였던 Qaradawi는 무슬림 형제단과는 현재는 별개로 독립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가깝게 지내는 사이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러한 자들의 프랑스 체류를 막는 일이 매우 복잡한 문제인데 이유는 그들이 프랑스 입국 시 비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 컨퍼런스를 조직 운영하는 프랑스이슬람 연합회(OIIF) 회장 Ahmed Jaballah는 Qaradawi가 이미 여러 차례 프랑스를 방문한 적이 있었던 것을

언급하며 금번 사르코지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미니스커트 착용 금지를 요청한 종교부 장관



인도네시아 정부가 반음란법에 따라 미니스커트를 입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의 종교부 장관인 수리아다르마는 미니스커트가 음란한 것이기 때문에 입지 못하도록 법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릎 위로 올라오는 스커트를 입는 것이 음란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 반음란 유도유노 대통령은 개발연합정당의 대표인 수리아다르마를 이달 초 음란 방지 전담반의장으로 위촉하고 관련 지원을 약속했다.

수리아다르마 알리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이 "강간 등 심각한 성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여성들이 미니스커트를 입었기 때문이다"라며 "미니스커트 착용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회 파트와(이슬람 법에 따른 결정이나 명령) 위원회 부장관인 아미누딘야루브는 샤리아에 따르면 여성은 긴 스커트를 입어야 할 뿐 아니라 신체의 사적 인 모든 부분들을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수리아다르마 박사는 발리와 같은 관광지는 어떻게 다루어질지 언급하지 않았다. 박사와 함께 하는 부서의 대변인에 따르면 음란방지 전담반이 어떻게 해당범죄를 다룰 것인지까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는 뿌리 깊은 종교적 관념에도 불구하고, 현대가 도래하면서 미니스커트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이 많다. 이에 정부가 복장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UCANews 이슬람 연구 네트워크

선교사 멤버케어



황희숙 박사

(글로벌멤버케어센터 대표)

8. 멤버케어의 장애물

브루스 스완슨은 멤버케어 정신을 함양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다.

(1) 첫 번째 장애: 서구 세계는 물질적이며 과제 중심적이다. 그들에게 중요하게 간주된 것은 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서구 교회와 선교기관은 선교를 하는데 이와 동일한 방식을 취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과제는 성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거룩하게 위임된 과제이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늘 우선시되지 않았다. 교회와 교회 지도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한 태도는 우리의 결정과 정책, 조직에 종종 나타난다. 이러한 자세는 신행 파송국 교회들에게도 깊게 침식되어 그들 또한 동일한 오류를 되풀이 하고 있다.

(2) 두 번째 장애: 정보와 이해부족이다.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선교는 힘든 일이며 일이 많고 선교사들은 당연히 이러한 어려움을 견뎌야 한다고 믿어왔다. 사실 선교사역은 실로 어렵고, 때로는 지극히 힘들다. 대개, 사역자들은 주님의 부르심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끈질기게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매우 강조된 것으로서의) 대다수 열심 있는 훌륭한 사역자들도 개발되며 케어되지 않으면 단순히 "약해지신" 정도가 아니라 "퇴짜버리고" 만다.

(3) 세 번째 장애: 무한한 필요와 제한된 자원이 복합된 데서 기인한다. 세상의 육체적, 영적인 필요는 매우 큰 반면에 자원은 극히 부족함에 따라 우리는 사역자들을 등한시하며 과제를 성취하는 일에 모든 재정과 인력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9. 멤버케어 원칙

선교사의 바람직한 멤버케어를 위해서 목회적 차원에서 적절한 원칙들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파송받은 선교사에게는 (1) 명확한 과제 목표와 목적,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업무규정이 구체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 권위, 감독, 의사소통, 의무, 책임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갖는다. 의사소통과 보고는 정기적으로 한다. (3) 목회적 케어와 후원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파송교회, 파송단체, 현지단체/현 교회와 팀책임자/직무 감독자/병관리자/회 감독자/멘토에 대한 각각의 의무들은 모든 분야에 대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4) 개인적, 영적 발전의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5) 참가자들에게 행동 및 관계 지침이 주어져야 한다. (6) 건강관리, 보험, 의료 사고, 안전 및 철수, 스트레스 관리와 갈등 해결, 부정행위, 훈련, 불만을 포괄하는 조처들이 적절히 확립

되며, 의사 소용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10. 멤버케어의 동향

'선교사 멤버케어'라는 주제는 1992년부터 현대 선교의 핵심 전략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1998년 10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전 세계번역선교회(WBT) 소속 선교사들의 목회적 관리 워크샵에서 과거 몇 년 동안 겪었던 위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누었던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선교사들의 위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도래했음을 알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선교사 멤버케어는 국제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지난 1997년부터 2001년에 이르기까지 선교사 케어에 관한 초교파적 선교기관 협의회가 인도와 파키스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헝가리,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뉴질랜드, 미국, 페루, 브라질에서 열렸다. 이매일 포럼, 웹사이드, 문서자료, 초교파 선교기관 대학위원회, 그리고 선교대회들을 통하여 전 세계의 멤버케어의 인력들로 하여금 활발한 의사소통이 전개되었다. 멤버케어 사역의 장은 실로 성숙되고 있다.

선교사 멤버케어가 한국 선교계에서 중점 이슈로 등장하며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2003년 6월 세계 복음주의 연맹(World Evangelical Association) 선교분과 주최로 캐나다 밴쿠버에서 총 51개국에 참석한 가운데 세계선교대회가 열렸고, 1998년 시작한 세계 멤버케어 모임이 4번째로 모였다. 캐나다 2003선교대회 분과위원 모인 MemCa 전문 컨설턴트인 셉테는 멤버케어를 주 사역으로 하는 16개국에서 모인 30여명 선교사 및 전문가들이 함께 했다. 특별히 선교사역이 금지되어 있거나 기독교가 박해받는 나라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구체적인 케어 방법론을 논의했다. 선교 현장에 직접 케어센터를 세우고 운영해 온 모델기관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 선교사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 무엇보다 다양한 위치에 있는 케어 사역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입체적으로 이 사역에 헌신할 때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선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선교사 케어 세미나', '선교사 안식년 세미나'를 2003년 7, 8월에 진행했다. 세계선교의 큰 관심 이슈 중 하나인 '선교사 멤버케어'는 이제 한국 선교계에서도 큰 관심사가 되었다. 한국 선교계를 주도하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선교사 멤버케어를 인식하고 모임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많은 의의를 가진다.

한국 내에서도 선교사 멤버케어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회의 본격적인 해외 선교가 40년 역사를 가지게 됐고, 오늘날 2만여 명의 선교사들이 열방으로 파송돼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들어 장기 사역 선교사들도 상당히 많아진 관계로 선교사 멤버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들은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기독교 의료계가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 의사, 정신과 의사, 심리 치료사, 전인치유 및 목회 상담사 등이 선교사 멤버케어의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병원과 한국구호회를 비롯한 의료선교 단체와 그 밖의 여러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돌보는 일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가고 있는 것은 한국 선교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끝)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39-06-8277-3385, 39-348-339-1726 39-06-943-3676(교우실) VIA DEI QUINTI 32-38 00175 ROMA, ITALY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동 3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02)2-490-7000, Fax. (0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가락동 340-1(131-231)	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철 주일1부예배: 오전 7:4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http://gimpoch.org Tel. (02)31-984-2939, Fax. (02)31-983-4853 경기도 김포시 수자동 264번지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양자기도회: 오후 9:00 Tel. (062)522-4834 500-170 경교광역시 북구 중앙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양자기도회: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대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Tel. (8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92동 1418-1, (612-824)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회: 오전 4:30 (1부)터미 4회 Tel. (02)2-440-9000, Fax. (0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길동3동 330-5, (134-830)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창윤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점심)을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복동 1312번지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점심)을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복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양자기도회: 오전 6:30 Tel. (02)2-2646-3181~3, Fax. (0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02)2-998-9993,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일)을 원한다 Tel. (0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333-3호	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12: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0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92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02)2-568-0191, Fax. (02)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Fax.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랑구 인사동 137 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오리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양자기도회: 오후 9:00 Tel. (02)2-84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02)2-786-6579, 새벽(0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서울 용인시 이천동 302-67 (140-031)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8: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곡동 415 서울 양곡동 301호	왕성교회 담임목사: 길자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0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연희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양자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나결일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0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곡4동 294-1(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영주시 흥덕구 사정동 259-12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영주시 흥덕구 사정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02)2-793-7740 서울시 용인시 이천동 302-67 (140-031)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8)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기독교칼리지 교수)

3. 성격-이중문화적/이중언어적 교육 (Bi-cultural/Bi-lingual Christian Education)

지난번 이야기에서 우리 한인 교회의 기독교 교육이 지난 두 번째 성격인 "이중문화적/이중언어적 교육(Bi-cultural/ Bi-lingual Christian Education)"에 대해 소개를 드렸습니다. 교육 사역이 피교육자들의 삶의 자리와 상황을 고려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 교육 사역의 대상이 "한인(Korean Americans)"인 우리 한인 교회들의 교육이 "이중문화적/이중언어적 교육(Bi-cultural/ Bi-lingual Christian Education)"인 것은 다분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중문화적/이중언어적 교육은 우리의 교육 사역이 한인들의 삶의 상황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건강하게 건설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 가치들과 함의들을 갖고 있

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때, 우리 한인들이 겪는 이러한 혼란과 갈등과 혹은 상처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데 가치가 있다 하였습니다.

이중 문화적 교육은 우선 양쪽의 문화가 서로 다르지만 모두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진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원론적으로 볼 때 충돌하는 양 문화들 사이에서 어느 쪽 문화의 가치들에 더 우선해야 하는지를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우리 한인들의 상황이 그들의 혼란과 갈등 및 상처를 야기 시켜왔기 때문입니다.

이중 문화적 교육은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의 자유"를 담보하는 가치적 배후가 되어주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한인들의 혼란과 갈등 및 상처를 경감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이중 문화적 교육은

이중문화적/이중언어적 교육은 문화/언어 차이 혼란 갈등 경감 역할 차별로 경험되는 문화적 차이가 조화 이룰 수 있도록 교육

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는 우리 한인교회의 교육적 지향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가치들, 함의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문화적/이중언어적 교육"의 첫 번째 가치는 그것이 우리 한인들 특히 우리 한인 자녀를 경험하는 문화적/언어적 차이에서 오는 혼란과 갈등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선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한인들은 - 가치관이 이미 확립되어 이민을 온 어른들은 물론이거나 아직 가치관이 채 다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그 자녀들의 경우를 특히나,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물론-한국에서 살아온 한국인들이나 미국에서 살아온 미국인들은 대강 예상할 수는 있어도 결코 이해하고 공감할 수 없는 혼란과 갈등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이는 특히 우리 1.5세 친구들의 경우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자칫 정서적 붕괴상황을 가져올 수 있을 만큼 당혹스럽고 해결하기 힘든 경험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차이(difference)"가 아니라 "차별(discrimination)"로서 경험되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이중 문화적 교육 사역이 양자가 충돌

상황에 적절하게, 우리 한인들이 밭 밟고 사는 땅의 문화와 우리 한인들의 뿌리인 고국 땅의 문화를 조화시켜도 무방하다는 것, 아니 그 이상으로 그렇게 조화시키는 것이야말로 매우 현명하고 성숙한 삶의 방식이라는 깨달음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한인 사역자들은 이러한 깨달음을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삶에 내면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다, 스스로 먼저 타당한 기준 없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며 자유함과 유연함을 가지고 양쪽 문화들을 다루고 그 사역에 녹여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성경적, 신학적 근거들을(이방 땅에서의 미스라엘 민족 혹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또는 원론적인 창조와 평등성 등등) 연구하고 제시할 사명이 있다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중문화적/이중언어적 교육이 우리 한인들 특히 우리 한인 자녀를 경험하는 문화적/언어적 차이에서 오는 혼란과 갈등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있다"는 그 첫 번째 가치에 있어서의 언어적 측면에 대한 논의와 "이중문화적/이중언어적 교육"이 가지는 다른 가치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매일가정예배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열 예수안의 진리(마22:34-46)

36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율법 중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분류하고 그중 248개를 중요한 것으로, 365개를 덜 중요한 것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284개 중에서도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 논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사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주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처럼 지식이 많다고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을 많이 알면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예수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14:6)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의 중심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임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화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마23:1-12)

6절과 7절을 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잔치와 회당의 상석을 좋아하는 것을 비판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를 높일 때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라고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창

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손윗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는 결과는 어땠습니까?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땅을 상급으로 받게 됩니다(창15:1). 천국의 상급은 얼마나 심금을 받았는가 아니라 얼마나 양보하고 낮추고 섬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 지도자의 타락(마23:13-26)

13절과 15절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일곱 가지 저주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저주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인 율법의 선생의 지위를 이용해 구약 계시를 그릇되고 편협하게 해석해 가르쳤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도 영접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구원 얻는 것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개종자에게는 그들의 그릇된 교

리와 형식주의를 강요함으로써 그들로 더욱 악의 길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지도자가 타락하면 겪게 되는 심각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들은 늘 자신을 살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타락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천국문을 닫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목 성도의 냄새(마23:27-36)

27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회칠한 무덤'이란 당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아 외부에서 온 순례객들이 무덤에 접촉하게 됨으로써 부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무덤에 회칠했던 것을 염두에 두신 표현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회를 칠하면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무덤속은 여전히 부패한 시체로 인한 악취로 가득했습니다. 즉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해 겉으로는

의롭고 경건한 척하지만 그 내면은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음을 질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장막은 비록 해얀 가죽으로 겉은 초라했는지 모르나 내부는 황금과 유황에서 나오는 빛과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성도들은 비록 겉은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속사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도 고결하고 거룩한 향기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품에서는 고급 향수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가 풍겨 나와야 합니다.

금 은총의 다리(마23:37-39)

37절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이것은 마치 번개나 천둥이 칠 때, 혹은 독수리나 매가 먹이를 찾고자 날 때, 암탉이 그 새끼를 부르며 자기 날개아래 품어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으로 향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형편 가운데 '황금다리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범죄이지만 중도에서 스스로 그 행위를 중지한 사람에게는 형벌을 감해주거

나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범죄의 길을 가다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주는데, 자비와 사랑으로 늘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의 다리를 베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의 길을 걷고 있다면 지금 당장 발길을 돌리십시오. 발길을 돌려 회개를 위한 은총의 다리를 넘어온다면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날개로 품으시고 감싸주시실 것입니다.

토 끝이 오리라(마24:1-14)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3절에 기록된 제자들의 질문, 즉 주님께서 언제 세상 끝이 오며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끝에 대해 대답을 하십니다.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천재지변과 난리

의 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 진정한 종말이 오기위해서는 천국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처럼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져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다 재림하시는 주를 믿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 /배경 /주석 /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마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질문과 상호 긴밀한 연관하여 새롭게 통합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기독교인을 위한 최고의 선물

- 다니엘 전자성경
- 만나 전자성경

도서

신앙서적, 일반서적, 신간도서, 베스트 셀러, 가정/결혼, 교양/문화, 교회교육, 교회음악, 디지털바이블, 묵화와 신학, 성경/찬송가, 성서연구, 소프트웨어, 신앙생활, 신학일반, 실천신학, 어린이/청소년, 영적성장, 오디오북, 원서, 정기간행물, 전도/선교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 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멀티프로젝터 3000 ANSI LUMENS

-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
- 좋은 화질의 제품, 저렴한 가격
- 소형에서 대형까지 무료 상담
- 멀티미디어 프로젝터와 스크린 판매 & 설치
- 음향/영상/조명장비 판매 및 설치
- Multimedia Projector & Screen 판매
- Consulting/Design/Set up

2300 Ansi Lumens \$699
2600 Ansi Lumens \$799
3000 Ansi Lumens \$899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음악

새로나온 음반, 베스트 셀러, 국내음반, 비디오/DVD, 악보, 어린이, 해외음반, 찬송가, 연주 음반

교회용품

목사 가운, 성가대 가운, 크리스탈 강대상, 강대상, 교회음향, 선물용품, 시상/행사, 예배용품, 카드, 기타

E7 미가엘 반주기

뛰어난 휴대성! 활 바뀌고 들리진 기능!

- 선명하고 넓은 LCD화면
- 원음에 가까운 연주
- 본체 고음질 스피커
- USB 호스트 기능
- SD카드 사용
- 터치스크린 방식
- 장시간 연속재생

HIT상품 미주총판

찬양연주기, 성경 DMB, 네비게이션, 영화, 음악 FM라디오, 음성녹음 가능

미 중등부 지사 획득! 특별세일!

헬라성구사

에하드수정강대상 EHAD CRYSTAL PULPIT

LED LAMP를 설치한 빛나는 강대상 헬라문의 독특한 디자인

최저가격 보장

성구영계 최초 GD마크 획득! 한국디자인 진흥원으로 부터 Good Design 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지성남품업체 선정

이들이 자유로운 바퀴(360도회전) 중공(171형) 1톤급 신년특별 유망채널 - 성교자 시력보호

이외에도 다양한 목재성구와 크리스탈 성구가 있습니다.

주문처

성경, 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 것

할렐루야백화점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샵핑몰 www.gospelmall.com

NY 131-01 39th Ave., Flushing, NY 11354 Tel.(718)762-0011/Fax.(718)762-8402 1-800-404-1171

NJ 205 Bergen Turn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LA 음향, 영상, 포평 (213)447-4011

성경, 찬송가 기독교서적 일반서적 영문기독교서적 강대상, 까운, 달력, 다이어리

사진으로 보는 제 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본지 발행인 장영춘 목사(오른쪽)가 세미나를 호스트 해준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왼쪽)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참석자들



리셉션을 마치고 금란교회에서 저녁식사를 준비했다.

▼ 준비팀들이 접수를 받고 있다.



▼ 평신도지도자 강의실



강행군 속 불구 말씀으로 돌아가 비전과 소명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

이모저모

본지가 주최한 제 27회 세계한인 목회자 세미나가 지난 20일 막을 내렸다[1, 2면 기사참조]. 세계 각처에서 모인 목회자들과 선교사, 그리고 평신도 리더들은 쉴 틈 없이 진행된 강의로 피곤함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새로운 비전과 소명을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간직했다. 3박4일 동안 진행된 세미나의 이거저곳을 살펴본다.

○...4월의 워킹홀은 개나리, 진달래, 벚꽃들이 꽃망울을 터트리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맘껏 자랑하고 있었다. 세미나에 앞서 14일 쉼라톤 워커히 호텔로 도착한 스태프진과 직원들은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매년 세계 각 처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 본지 발행인 장영춘 목사는 본 세미나를 통해 특별히 의도하는 바가 있다. 사역현장에서 지쳐있는 사역자들에게 소명감을 재확인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열정을 회

복하는 일에 돕고 싶은 것. 그러기에 명강의는 물론 편안한 잠자리와 음식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올해 숙소는 워커히로 정해졌다. 17일 새벽 6시30분. 미주크리스천직원들과 스태프들은 한자리에 모여 세미나 참석자들의 등록과 체크인을 돕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특히 미국 비행스케줄 관계로 새벽 6시에 도착한 이들도 있어 L-이 호텔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들은 사우나에서 피곤을 풀 후 호텔로 오기도 했다.

○...오후 5시가 되자 셔틀 버스 7대에 분승하여 세미나 장소인 금란교회로 이동했다. 1만 명이 한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꾸며진 금란교회는 외벽이 돌로 되어 있어 그 웅장함을 한층 더해 주었다. 3층에 자리한 본당 내부는 3층으로 구성되었고 성가대 좌석은 양쪽으로 나뉘어 200여명이 앉을 수 있었다. 양 성가대석 중앙에는 관현악단 자리로 배치돼 있었다.

금란교회는 성도들은 세계 각처에서 도착하는 손님을 맞이 위해 교회 곳곳에 안내자를 배치하여 방문자들을 돕고 맛갈 나고 정성 담긴 음식들을 마련해 리셉션을 준비해 놓았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비롯한 미국내 각 지역과 한국, 일본, 중국, 브라질, 그리스 등 11개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은 지역별로 앉아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은혜 받는 3박4일의 여정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리셉션 사회는 송용걸 목사가 맡았으며 김홍도목사의 개회선언이 있었다. 이어 장영춘 목사는 담례사를 통해 "27년이 지나도록 신문을 위해 기도해준 모든 독자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하며 "세미나 개최가 쉽지 않은 일이다.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세미나의 막을 내리고 싶었으나 김홍도 감독의 후원으로 새 힘을 얻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끝까지 이어지도록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둘째 날 새벽 5:30분 각 방에

올린 모닝콜은 먼 길 오느라 피곤한 참석자들을 일깨워 세웠다. 아침식사는 호텔 뷔페로 준비됐다. 양식에 결들여진 해물 죽, 그리고 각종 디저트는 식사를 마친 이들은 새 힘을 얻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아침을 마치고 서둘러 금란교회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8시. 9층 비전홀에서 아침경건회를 드린 참석자들에게 하루 9강의 강의가 이어졌다. "쓰러질 것 같아요.", "잠이 너무 와요.", "너무 강행군이예요"라고 행복할 불평을 내비치는 참석자들도 있었지만 10분 휴식이 끝나고 다른 강의가 시작되면 누가 뭐라지 않아도 다시 강의실로 들어갔다. 여전도회에서 쉴 틈 없이 내놓는 정성어린 간식들은 먹는 이에게도 보는 이에게도 기쁨을 안겨주었다.

○...셋째 날 역시 새벽부터 눈비고 일어난 참석자들은 식사를 마치고 버스에 올랐다. 피곤하긴 하지만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셋째 날 역시 9개 강의가 숨차게 진행됐다. 10분 휴식은 달콤하기 그지없는 시간이다. 커피도 한잔 마시고 달콤한 캔디도 입에 넣으며 목신의 피곤을 털어내고 또다시 강의실로 향하는 참석자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뽐낸 풍겨냈다. 이번 세미나에도 아름다운 음률의 특별 찬양들이 이어졌다. 프로 성악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글로리아선교중창단은 매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고, LA에서 원정출연한 남가주장로성가단원들 역시 중후한 남성톤으로 가슴을 울리는 찬양으로 드러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참석자들이 성향을 이룬 목회자세미나는 장영춘 목사의 첫 강의로 시작되어 황의영 목사, 천성덕 목사, 송규식 목사, 김기원 목사, 조인구 목사의 명강의가 첫날 진행됐으며 둘째날 강의는 권태진 목사, 김홍도 목사, 소강석 목사, 조일래 목사, 이정현 목사, 김규동 목사, 홍민기 목사의 강의로 이어졌다. 또한 저녁 영성예배는 권태진 목사, 김홍도 목사, 소강석 목사가 맡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목적과 이유를 제시하며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 목회자가 될 것을 피력했다. 한편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평신도 세미나 역시 시간 시간마다 강사님들의 진솔한 강의가 이어져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바른 신앙지침서

를 제시했다. 3박4일 동안 쉴 틈 없이 진행된 강의의 육신의 피곤함도 있었지만 마지막 날인 17일 폐회예배는 넘치는 감사와 헤어짐의 아쉬움이 어울려 은혜 속에 진행됐다. 이날 미주크리스천 장영춘 목사는 김홍도, 소강석, 권태진 목사를 비롯한 각 강사님들에게 감사패를 전했으며 2013년 성지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공동취재팀>

(2면에서 계속)

발행인 장영춘 목사는 "김홍도 목사의 진실함에 다시 한 번 감사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금란교회의 주사역인 기독교학교 설립에 기도를 당부하고 감사패를 증정했다. 또 장 목사는 참석자들 모두에게 일일이 인사하지 못함을 사과했다. 감사패는 주 강사 김홍도 목사, 권태진 목사, 소강석 목사와 강사 모두에게 증정됐다. 또 진행을 맡아 수고해준 이원호 목사, 김해천 목사, 찬양을 한 김진성 목사부에게 증정됐다. 한편 내년 세미나는 예루살렘, 터키, 그리스 중 한 곳인 성지에서 개최된다. <공동취재팀>

사진으로 보는 제 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1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금란교회 본당에서 수요영성집회가 열리고 있다.



▲ 매 집회마다 찬양한 글로리아선교중창단

▼ 오프닝과 수요연합집회에서 찬양한 남가주장로성가단



시간마다 은혜로운 찬양을 한 찬양자들. 오른쪽 맨위 천성덕 목사부부, 아래 소유영 소철화 부부, 왼쪽 김준성 목사부부.



◀ 권태진 목사가 자신의 자리에 사인해주고 있다

▼ 세미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헌신해준 퀸즈로교회 팀들. 앞줄 가운데는 장영춘 목사부부, 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박규성 목사.



호텔에서의 아침식사



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s **PGM**
 세계 전문 인 선교 회

중·장기선교사 훈련



- 일시: : 2012년 7월 9일(월)~21일(토)
- 장소: 멕시코 칸쿤 GMA 세광국제선교센터
- 대상: 장기 선교사 후보생, 비거주 선교사 후보생, 선교사로 재훈련을 원하시는 분
- 강사: 양춘길목사, 정인수목사, 호성기목사 외 미주 한인교회 지도자 김종관선교사, 이규종선교사, 조길순선교사 외 장기 선교사
- 접수마감: 2012년 6월 16일(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함께 동참할
선교의 동역자를 모집합니다!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동역자들을 찾습니다. 내가 있는 곳을 떠나 타문화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고 선교에 헌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선교 공동체 훈련을 실시합니다. PGM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훈 련 비: \$300/개인 (항공료 자부담)
 \$500/부부 (항공료 자부담)

훈련내용: 선교훈련 전문가가 선교지 내에서 실시하는 On-site 훈련으로 교육과 실습을 동시에 진행

Spiritual Formation of Missionaries
 Survival Skills, Individual Intercultural Adjustment
 Cross Cultural Tools for Missionary Work
 Community Development Strategies
 Evangelism Practice
 Fundraising Skills & Financial Reports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PGM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admin@pgmusa.org
 전 화: (610)397-0484